
V

요도





여수시 
변천사

V. 묘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 면 적 : 11.54km²
- 위 치 : 북위 34° 53' 04", 동경 127° 42' 12"

광양만의 중심에 산업단지로 둘러싸인 묘도는 모양이 고양이처럼 생겼다 하여 한자의 고양이 '묘(猫)'자를 써서 묘도라 불렀으나 광양만 항로의 준설토 매립으로 면적이 늘어나서 그 모양새도 많이 변했다.

창촌, 읍동, 온동, 도독포, 광양포 5개의 자연부락과 부속 도서로 지신도, 송도, 목도, 소당도, 황도, 서치도, 섬목섬, 누른섬 등 8개가 있었으나 지신도는 광양시로 편입되었고, 섬목섬과 누른섬은 매립되어 육지가 되었다.

묘도는 고인돌과 패총 돌칼 등의 유적으로 보아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하였으며, 조선말까지 순천부에 속하면서 화양면 곡화목 소속의 묘도목장이 설치되어 1895년 제도개혁 때까지 독립 행정구역으로서 감목관이 행정과 조세권 등 수령의 권한을 행사했다. 정유재란 때는 군사 요충지였는데 왜군과의 격전을 치르면서 창동(倉洞), 도독(都督), 산성 등의 관련되는 지명 흔적이 남아있다.

2012년 진입도로 개설공사로 묘도와 광양시를 잇는 이순신대교와 여수시 월내동에서 묘도를 잇는 묘도대교로, 섬의 양방향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다.

| | | |
|----|--------------|--------------------------|
| 연혁 | 1409년(태종9) | 삼일포면에 소속 |
| | 1445년(세종25년) | 목장 설치 |
| | 1896년(고종23년) | 돌산군 태인면에 소속 |
| | 1914년 | 행정구역 개편으로 여수군 삼일면 묘도리가 됨 |
| | 1980년 | 삼일면이 삼일읍으로 승격 |
| | 1986년 | 1월 1일 여천시 묘도동이 됨 |
| | 1998년 4월 1일 | 삼려통합으로 여수시 묘도동이 됨 |

1) 주요 선착장 간의 거리

월내동 코스모스 선착장에서 창촌 선착장까지 1.38km이며, 광양을 건너던 광양포와 옛 광양나루인 지금의 광양시 황길동 1335번지까지 4.3km이다.



묘도 이순신대교

2) 인구 현황

2021년 11월 30일 현재, 묘도에는 주민등록상 616세대, 1,154명이 살고 있으며, 이중 남자는 601명, 여자는 55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 년도별 | 세대수 | 인구수(명) | 남(명) | 여(명) |
|---------|-----|--------|------|------|
| 1993.12 | 482 | 1,981 | 999 | 982 |
| 2010 | 536 | 1,343 | - | - |
| 2021.11 | 616 | 1,154 | 601 | 553 |

3) 토지 현황

| 면적 | 농지 | 임야 | 대지 | 기타 | 해안선 |
|----------------------|---------------------|---------------------|---------------------|--------------------|--------|
| 11.54km ² | 2.13km ² | 5.42km ² | 0.19km ² | 3.8km ² | 16.3km |

나. 지형과 환경

1) 지형

묘도는 여수 지역 북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양만 내에 있는 섬 가운데 가장 큰 섬으로, 월내 선창에서 정북방 1.5km, 광양시 금호동 매립지에서 서남방 1.7km, 동남방 3.2km지점에 위치해 있다. 위도상으로는 최북단 동경 127°40'35", 북위 34°50'04", 최남단 동경 127°40'59", 북위 34°50'40", 최서단 동경 127°40'20", 북위 34°50'33" 선의 교차점 내에 위치하고 있다.

묘도의 주봉인 봉화산은 높이 246m로 남산(南山)을 경계로 하여 2개의 능선이 동남과 동북방으로 각각 뻗어 내렸다. 2개의 능선을 경계로 섬 중앙부와 연안 일부만 평지를 이루고 있다.

동남의 줄기는 남산(200m)을 만들어 창몰(倉村)을 품었고, 동북방은 북으로 뻗다가 평바위(온동뒷산 207m)를 만들어 남쪽에 읍동을 북쪽엔 온동을 거닐고, 방향을 바꾸어 동으로 지름머리 목장성(120m)이 위치해 있다. 북서쪽 해안가는 작은 만이 형성되어 포구로 사용되고 있다.

봉화산은 서북방의 계곡에서 오를수록 가파르고 남산은 동남쪽이, 그리고 평바위는 북의 해안 쪽이 가파르며 중앙부와 남쪽은 경사가 완만하여 촌락과 농경지가 분포한다.

2) 지질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인 낙동층군하부(경상누층군)로 이루어져 있고, 동쪽은 광양만의 준설토 매립지로 남서쪽 만입지는 일제강점기 시대 방조제로 막아 농경지로 활용하고 있다. 특히 광양포 방파제 주변과 창촌의 선장개 주변 해안은 응회암과 역암이 독특한 형태의 풍화혈 지질구조가 광범위하게 분포돼 있다. 해안은 사빈해안이 많으며 간석지가 넓게 발달하여 있다.

묘도의 지질은 신동층군 내 하산동층이 중심을 이루는데, 이 층의 두께는 약 1,000m로 낙동층을 정합으로 덮으며, 주로 역암, 역질 사암, 적색 사암, 적색 셰일로 구성된다.

하산동층은 묘도에서 대표적으로 나타나는데, 묘도항을 중심으로 묘도 서부와 북부를 거쳐 온동 마을까지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발견된 층후 2~2.5m 내외의 층식 석회암은 하산동층의 퇴적 환경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층식 석회암은 크고 작은 호소(湖沼), 즉 퇴적 분지에서 많은 양의 탄산염 물질이 퇴적되는 과정에 쇄설성 실트나 점토 입자로 구성된 퇴적층이 좁게 분포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역암층을 덮고 있는 사암층에 발달한 풍화혈

부정합으로 연결된 다양한 층리

퇴적암을 관입한 암체의 모습

해식애와 단구



화성암체의 관입과 미세습곡

괴입의 노치

선택적 풍화에 의한 타포니

역암층-육성층의 증거

3) 기후

1월 평균기온은 2.1℃, 8월 평균기온은 24.8℃, 연 강수량은 1,200~1,500mm이다.

다. 식생과 생태

묘도의 삼림군락은 교목층과 아교목층이 발달한 상태이고, 관목층과 초본층은 상대적으로 빈약한 편이다. 본 군락의 층위별 우점도와 군도를 보면, 교목층은 대부분이 곱

솔이 우점하고, 아교목 층은 사스레피나무가 우점하고 있다.

그 외에 아교목층에는 자귀나무, 칩, 예덕나무, 말오줌때 등이 분포한다. 관목층은 주로 밤나무, 예덕나무, 사스레피나무 등이 낮은 피도로 분포하고 있다. 초본층은 땃덩이덩굴, 담쟁이덩굴, 계요등, 주름조개풀 등이 상대적으로 우점하고 있다.



푸조나무



작살나무



용가시덩굴



소태나무



하늘수박



엉겅퀴



개망초



까치수영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섬 주위에는 쥐섬, 소당도, 황도, 새섬, 목도 등 여러 섬들이 있다.

1896년(고종 23) 2월 3일, 칙령 제13호에 따라 흥양, 낙안, 순천, 광양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섬들을 묶어 새로운 행정구역인 돌산군에 포함시켜 묘도는 지금의 광양지역인 태인면에 소속되었다.

1896년까지 묘도에 있었던 자연마을은 남산동, 읍포, 광양포, 도독포, 온돌동, 유두, 지신도 등에 7개가 있었다. 1914년 3월 1일 조선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돌산군이 해체되어 여수군 삼일면으로 변경되었다. 1949년에는 여천군 삼일면 묘도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묘도 지명지도

1976년에 여천공단 조성으로 전라남도 여천지구출장소 삼일지소 온동리로 운영하다가 1980년 12월 1일에는 전라남도 여천군 삼일읍 묘도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1986년 1월 1일 여천시 승격과 동시에 묘도동으로 승격되었다. 1998년 4월 1일 삼여 통합으로 여수시 묘도동이 되었다.

2007년 11월 착공한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개설공사 제1공구 건설이 2012년 10월 19일 완공됨에 따라 묘도는 사장교로 연결돼 도선은 자취를 감췄다.

나. 묘도의 지명유래

섬의 생김새가 고양이 모양이라 해서 묘도라 이름지어졌다 하며, 여기에는 2가지 설이 전해진다. 영취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면 독수리와 고양이가 눈앞의 쥐를 노려보고 으르렁거리는 형국인므로 독수리는 영취산이요 고양이는 묘도일지니 쥐는 의당 쥐섬(우순도 앞 적량동 산220번지) 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3곳의 지명대로 설화 된 것 같으니 영취산은 영험이 있는 독수리요 묘도는 앙증스러운 고양이니 쥐는 우순도의 소품에서 숨으려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음이다. 여기에서 고양이는 누룽지와 쥐를 놓고 2가지 먹이 중 어느 것을 먹을까 입을 벌린채 망설이고 있으니 누룽지는 서치도요.(묘도 산288번지) 쥐는 역시 쥐섬이다.¹



묘도 향토학자 심재수 씨

일설은 쥐와 누룽지 멍치를 코앞에 두고 고양이는 취사선택의 포만감에 빠져 있으므로 큰 인물은 나지 않더라도 의식주만은 걱정 없을 것이라고 전해진다는 설이 그것이다.²

『세종실록』에는 의정부(議政府)에서 병조(兵曹)의 첩보(牒呈)를 바탕으로 군선을 만들기 위한 소나무의 중요성과 소나무가 잘 자라는 지역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한 곳이 낙안군의 '묘도(猫島)'라는 기록이 있다.³

따라서 묘도가 기록으로 나타난 것은 조선 초기로 사료된다. 『신증동국여지승람』 순천도호부조에 '묘도(猫島)는 순천부의 동쪽에 있으니 둘레가 60리요, 목장(牧場)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지름머리산(120m)에는 성터가 역력히 남아 있다. 이 점에 대하여 2가지 견해가 있다. 하나는 왜란 당시 전쟁 수행을 위한 축성이었다는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목장을 관리하기 위한 성이라는 것이다.

창물 선창에서 마을로 들어가자면 오른편의 논벌에 반경 10여m, 높이 4m 정도의 흙산이 있고 그 위에는 20여 그루의 나무와 화단 그리고 전망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곳이 묘도동 1045번지로 조산(造山)이다. 조산은 인위적으로 만든 산이다.

1 묘도 거주 향토사학자 심재수 전언

2 1986 여천시마을유래지 155p

3 세종실록 121권, 세종 30년(1448) 8월 27일

다. 마을 유래

묘도의 주봉은 봉화산(246m)로 남산을 경계로 하여 읍동, 온동, 창촌으로 구분된다.

1) 읍동

고을이 넓은 해안을 끼고 있다하여 고을 읍(邑), 개포(浦)의 뜻을 따서 고을개라 불리어 왔으며 묘도의 3개 촌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 묘읍이라 명명되었다.⁴

1450년경에 묘도의 고을과 넓은 해안을 끼고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을개라 불려오다 조선말 묘도의 3개 촌락 중 가장 중앙에 위치해 묘읍이라 하였다. 1914년에 행정구역 개편에 따라 돌산군 태인면 지역이었으나 온돌개, 팽이골, 읍포를 합하여 묘도리라 칭하고 여수군 삼일면에 편입시켜 지금까지 읍동으로 부르고 있다.

읍동은 삼한시대에 마을이 형성되었다고 전하고 있다. 이곳에서 신석기시대의 돌칼, 돌 도끼 등이 발굴되었으나 현재는 찾아볼 수 없다. 입향 유래는 1500년 경 제주 고씨 고담이 이 마을에 처음으로 입향하여 마을을 형성하여 살았다고 전하고 있다.



읍동의 전경

4 여천시 향토지명 모음집

2) 온동(溫洞) 마을

온동마을에 가장 먼저 들어온 입향조는 경주 정씨라고 하며 다음에 남양 방씨가 들어 왔다. 남원 방씨 입향조는 방명국으로 1484년(성종 15) 갑진년에 전라도 남원에서 묘도 창촌에 입향하였다. 그 후 세손인 방호생 씨가 자손이 없다는 것을 알고 온돌개리로 이주하여 후세들이 세거하고 있다. 현재는 온동에만 14가구가 살고 있다.



온동에서 최고령인 방원석(90) 할아버지

온동의 옛 지명은 ‘원들개’라고 했는데 ‘구레실’이란 들의 왼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라 한다. 생업은 반농반어다. 마을 뒤 계단식 논에는 밭작물을 심고 있다. 바닷가에 위치하여 온돌개 또는 온돌포라 불리어 왔으며 여기에서 구들방에 쓰는 방돌을 대량으로 생산했다 하여 온동이라 부르게 되었다 한다.⁵



1960년대 온동마을 (정민주 작)

마을 입구의 유래를 적어 놓은 유래석에는 1896년 2월 3일 칙령 제13호에 의거 돌산군이 태인면 편입되면서 ‘온돌동’이라 불렸으며 1899년 제5대 돌산군수 서병수가 발행한 여산지에 온돌동을 ‘온동’이라 개칭하였다.

① 부처꼬랑

동네에서 애 낳기를 빌거나 공 드리고자 할 때는 부처골의 부처에게 빌었다고 한다. 그 부처는 오래전에 분실하였지만 지금도 그곳을 부처꼬랑이라 한다.

② 골안샘

동네 뒤에 있는 당샘이었다. 평소에도 깨끗하여 산모가 젖이 안 나올 때는 이 샘물을 떠다가 ‘젖타기’를 했다. 젖이 만나와 젖을 탈 때는 산모가 이샘에 와서 “용왕님네 젖 잘 나와서 우리 애기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2개의 물병에 물을 담고 솔가지로 막고 양 옆구리에 끼고 내려온다.



온동의 골안샘

5 여천시 향토지명 모음집

③ 효부 김령김씨 비문(孝婦 金寧金氏碑文)



효부 김령김씨 비

효부 김녕김씨 부인 김정엽은 효와 예를 본으로 하는 전통있는 金寧金氏 30世孫 家門 김중칠(金鍾七)의 딸로 태어나 溫儒 단정한 품성에 엄격한 家庭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자라오다 猫島洞 溫洞마을 대가인 慶州鄭氏 宗家집 정선길(鄭善吉)의 妻로 시집왔다.

어려운 시골의 환경에서도 따뜻한 남편의 정성 깊은 보살핌에 힘입어 농촌의 주업인 농사일과 바닷일로 손발이 닳도록 괴로움도 모른 채 일을 해오면서 한 가정을 이루고 이웃 간 화목에도 앞장서 왔으며 병환 중인 시부모를 극진하게 섬겨 부모에 효도하고 노환으로 8년간 누워계신 노부모의 대소변을 받아가면서 몸에 좋다는 약을 구해다 달여 드리고 밤이면 고된 몸을 이끌고 밤잠을 설치면서 밤이 새도록 시부모의 불편한 다리를 편하게 주물려 드리고 밤마다 고된 생활에도 불구하고 부모 병수발을 해드렸으며 부모가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매일 조석으로 상식을 차려 올린 후 부모에 대한 애절한 곡을 부르짖으면서 제례를 올려드렸다.

이런 효행이 이웃 간에 흘러 나와 향도민과 관에까지 널리 알려지고 추천되어 1964년 10월 3일 여천군수 황갑손으로부터 군민을 대표하여 주는 효부 표창장을 수여 받았고 1970년 8월 27일 여수향교전교장으로 부터 효부 표창장을 수여해 받았으며 1977년 5월 30일 유도회 삼일면 회장으로 부터 효부(제15호)표창장이 수여되어 마을에서 모두 칭송했다. 어머니의 높은 효행과 업적을 길이 간직하기 위해 그 뜻을 모아 이 孝婦 金寧 金氏碑를 建立하게 되었다.

④ 지름머리

오래전 호남정유(현 GS칼텍스)가 들어설 무렵 묘도의 꼬리에 해당하는 섬 동쪽에 유두(油頭)라는 곳이 있는데 일제 강점기 시대 일인들은 이곳을 중심으로 석유가 나올 것이라고 탐사작업을 했지만 허사로 끝나고 지금은 그흔적만 남아 있다. 호남정유가 묘도 앞 적량 땅에 들어서고 유



최초의 현대식으로 제작된 지도(1917년)

두 앞 바다에 대형 유조선이 정박하면서 이곳을 지명 그대로 기름머리가 되었다 하여 우리 선조들의 선견지명을 탄복하고 있다. (주민 정○○)

지름머리가 油頭末로 표기된 것은 1899년 펴낸 돌산군지와 1917년 일제때 제작된 지도에 나타나 있다. 이것은 잘못된 표기이다. 지름머리의 지름은 기름(長)의 구개음화 하여 지름이 된 것이다. 기름은 길다는 동사를 명사화한 것이다. 그러므로 기름이라는 말은 어떤 사물이 자연적으로 길게 생긴 것이다.

이것은 인위적으로 길게 된 사물의 명칭과는 구분된다. 지름이 길음(長)의 뜻으로 불리는 사물 중에는 콩기름이 있다. 콩기름은 이 고장에서 콩지름이라고 부르는데 콩지름은 인위적으로 질러서(길러서) 식용으로 하고 있으며, 이 콩지름의 명칭은 음식으로 가공하였을 때는 ‘콩나물’이라고 부르는 특징이 있다.

이 구별은 대단히 좋은 것이다. 어떤 사물을 가공 또는 인위적으로 변화를 가하였을 때는 반드시 그 이름이 바뀌어야 한다. 이러한 예는 통나무가 땔감일 때는 ‘장작’이라 하고 넓게 얇게 켜올 때는 ‘판자’라고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로 콩기름과 콩나물로 구분하여 호칭하는 곳은 이 고장뿐이다.⁶

3) 창촌 마을

임진왜란 당시 군량미와 창, 칼 등의 무기류를 대량 보관하던 창고가 있었다는데서 유래한 마을로 그 후 바다에서 나오는 어패류와 건어물 등을 창고에 보관했다가 여수, 순천 등지로 수송한 곳이라 하여 창촌이라고 했다는 속설도 있다.⁷



창촌



선장개

6 여천시지 1998년

7 여천시 향토지명 모음집

고려가 멸망하고 난 후 조선이 개국되면서 이곳에 마을을 형성하여 주민이 운집하며 살았다고 전해지고 있다. 창촌이란 지명은 임진왜란과 정유재란 때 창고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충무공과 명나라 진린 도독이 왜군 소서행장 막하 부대를 무찌르기 위해 이곳 도독에다 진을 치고 있었다. 육지로부터 가지고 온 군량미, 창과 칼, 화살, 무기류 등을 현묘도초등학교 터에다 창고를 만들어 보관해 왔다. 이후에 3개 마을에서 나오는 오탁과 어패류 건어물 등을 창고에 보관 여수 순천 등지로 수송한 곳이어서 창촌이라 불리우게 됐다 전한다. 창촌 마을의 입향조 유래는 1396년경 설 씨가 입향하여 살아왔으나 그 수효가 적어 자손들을 퍼뜨리지 못하고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다고 한다. 임진왜란 때 남양 방씨, 청송 심씨 등이 입도한 후에 김해김씨가 입도하여 살고 있다.

4) 선장개

선장개는 당곡재 밑의 포구로 남쪽은 남산능선이, 북쪽은 봉화산의 능선이 만든 남동풍을 피할 수 있는 포구였다. 선장개란 배선(船)자에 감출장(藏)자를 써서 배를 감추거나 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장소를 의미한다.

임진왜란 당시 병선을 대피시켰던 곳이라 구전된다. 일제 강점기 시대에는 농지로 사용하기 위해 간척지로 만들다 해방이 되었는데 축조된 제방의 길이는 약 250m에 안쪽 길이는 375m에 이른다.

5) 광양포 마을

묘도동 북서쪽에 위치하며 광양군 쪽을 향하고 있는 포구라 해서 광양포라 한다. 고양이가 많이 서식하고 있어서 고양이골이라고도 한다. 포는 해안지명으로 우리나라 행정구역상 남해안 지방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포를 개라고도 하여 갯개, 광양개라고도 부른다.⁸ 100여년 전에는 광양을 건너는 나루가 있어서 도진부락의 지명인 광양포를 쓴 것으로 추정된다.

포구에는 왕이(갈매기) 바위가 입을 벌리고 있는 듯한 퇴적암이 있는데 물의 운반작용으로 퇴적되었다. 바위에 박혔던 자갈들이 침식 작용이나 염분에 의해 빠져나가 타포니(Tafoni)를 이루고 있다.

8 여천시 향토지명 모음집



광양포 마을



광양포 포구

6) 도독 마을

묘도 북서쪽에 위치한 항포구 이름으로 정유재란 때 왜군을 물리치기 위해 명나라 수군 진린도독이 이곳에 주둔하였다고 하여 도독(都督)골이라 부르게 되었다 전해진다.⁹⁾



도독마을 유래를 설명하는 박희열 씨

섬진강 하류에 자리한 천혜의 자연환경 때문에 굴, 바지락, 꼬막, 피조개 등의 패류의 서식환경이 뛰어나며 어류의 산란처여서 수산자원이 매우 풍부하여, 멸치, 장어, 개불 등이 어획되었으나 여수국가산업단지와 광양제철소가 조성되면서 해양 오염으로 인해 수산업의 기반은 쇠퇴하였다.



도독 마을



도독마을 쉼터

9 참조: 여천시 향토지명 모음집

라. 문화유적과 유물

1) 유물

묘도에서는 선사시대부터 사람이 살았었다. 유적부터 기술하면 묘도의 선장개 갯벌에서 돌칼이 그물에 걸려 올라왔다. 이 신석기시대의 유물은 온동 출신의 정수길이 소지 보관하고 있고 창촌의 남산에서는 기와장과 쇠붙이 등이 쉽게 발견된다. 최근 남산의 밭에서 불상이 출토되었는데 크기가 30cm 내외의 조그마한 것으로 쇠붙이였다. 장기간 매몰로 변색되어 재료를 분간키 어려웠으나 백제시대의 산물로 추정되었다.

이 불상의 재료를 감별키 위하여 묘도에 일시 거주했던 광양인에게 의뢰했으나 가져간 후로는 중무소식이며 그에게 감정을 의뢰한 것은 광양에선 채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금에 대한 상식을 갖은 사람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였다 한다. 이 밖에도 도독성의 노리목재에서 돌화살촉이 발견되었고 묘읍의 간척지와 남산자락이 대면한 이른바 쇠꾸러미에서는 쇠붙이들이 자주 발견되었다 한다.

① 돌칼

묘도에서 수습된 청동기시대의 유물은 응회암 및 역암이 독특한 형태의 지질층이 있는 선장개 앞 바다에서 고기잡이 하던 어부의 그물에 걸려 올려졌다. 2점의 돌칼을 인양하여 마을 사람이 보관하던 중 한점의 행방은 알 수 없고 한점은 중간이 부러진 상태로 보관 중이다.

인양된 돌칼 I 은 여수반도에서는 처음 발굴된 형태이며, 돌칼 II는 슝베식 돌칼로 칼 손잡이 부분에 나무 같은 재료를 끼워 사용할 수 있는 돌칼로 지금까지 여수 지역의 월내동과 돌산 세구지에서 완전한 형태로 각각 1점씩 발견된 예가 있지만, 묘도에서 발견된 슝베식 돌칼은 월내동과 세구지 유적에서 출토된 형식과 전혀 다른 모양을 하고 있어 학계의 주목을 받았었다.



선장개에서 발굴된 돌칼

2) 유적

온동의 조개 무덤과 묘도 우체국 앞 (1기)과 작은 곱산개 (2기)의 고인들은 선사시대 유적의 대표적인 것들이다. 봉화산(奉火山, 248m)의 봉수대는 그 흔적이 뚜렷하여 누구든지 식별할 수 있다. 비상사태의 발생 시 진례산의 봉화를 받아 광양 등 인근으로 연락

했다고 주민들은 전언하나 묘도 내의 위급상황을 고하는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진례산(510m)이 더 높으므로 바로 전달이 되지 않은 봉화산의 봉수를 통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이다.

창촌의 남산과 묘읍안산의 처녀바위 부근에는 절터였음을 식별할 수 있고 평바구(온동뒷산)에는 암자의 흔적과 샘터가 있다. 묘읍의 묘도산 1755번지 정옥현의 산골짜기에 향교골이 있고 이곳엔 고려시대 절충장군을 지낸 문씨 묘와 중추부사를 역임한 고씨 묘가 있으며 고려장터도 있다고 한다. (鄭基 전언)

창촌에는 좌기청(座起), 원세고(元稅庫), 환상고(還上庫) 등의 창고가 1790년대 이후에 설치되었는데 원세고, 환상고 등의 창고를 보호키 위하여 주위에 배수로를 설치하고 창고 앞의 항내를 준설하면서 운반하여 온 흙을 묻은 것이 산이 된 것이다. 묘도동 992번지 소재 지금 노인정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리사무소는 1896년 3월 현재의 좌기청이었다. 좌기청은 감관(監官) 등의 공무수행장으로 순천목장 사례성책(順天牧場 事例成冊)에 의하면 동쪽 산골 아래에 있으며 3칸이라 했다.

원형대로 보존하면 한층 더 역사성이 제고될 것이다. 세칭 고양이 입과 웅텡이개안 사이의 포구 선장 (개는 임진난 시에 배(船) 둘을 감추었던 곳이라 전해오며 선장(壯)이라고도 표기한 지적도가 있다고 하며(심재수), 배만 감춘 것이 아니라 장정(丁)들도 감춘 곳이라고 조심스럽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도독포(都督)에는 진린(陣)제독과 이순신 장군이 1598년 9월 20일부터 10월 9일까지 20일간 11월 11일부터 11월 18일까지 7일간 합하여 27일간을 머물렀던 곳이다. 묘도는 임진왜란의 전적지로 이때 쌓은 성인 도독산성이 현존하고 있으며 주위에는 성곽과 포대를 설치했던 흔적이 남아 있다.¹⁰

① 창촌 고인돌



창촌의 고인돌

묘도의 고인돌은 묘도 우체국 앞에 있는 구릉의 밭에 있다. 고인돌의 상식은 장방형이며, 장축은 남북 방향이다. 상석 밑에는 뿔돌이 있으며 옮겨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출토된 유물은 청동기 시대의 석검 2점이 수습되었다.

10 참고 : 여천시지, 1998 여천시 문화원

석검 I 식은 여수반도에서는 처음으로 발굴된 형태로 청동기시대 묘제에서 수습되는 유물의 중요한 자료이다. 석검 II 식은 습베식으로 이와 같은 형태는 원내동 고인돌군에서 1점, 세구지 고인돌군에서 1점이 발견되었다.

② 묘도동 산성



온동산성



형태를 알아보기 힘든 묘도동 산성

묘도동 산성의 축조에 관한 문헌 기록은 찾아볼 수 없고, 체성이 거의 무너져 있어서 성곽의 초축 시기를 알 수 있는 단서가 거의 없다. 다만, 출토 유물 가운데 기류가 고려시대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 산성은 고려시대와 그 이후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뿐이다. 묘도동 산성은 묘도에서도 동쪽으로 돌출된 곳에 위치한다. 해발 130m의 유두산 정상에서 해발 75m까지 연결된다.

북서쪽 해안가는 작은 만이 형성되어 있으며, 현재는 작은 포구로 사용되고 있다. 북쪽과 동쪽은 급한 경사를 이루며 내려가다가 해안선과 연결된다. 남쪽은 상대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게 내려간다. 곡부(谷部)는 유일하게 산의 북서쪽으로 내려가며 계곡은 크게 형성되지 않았다. 서쪽으로는 섬의 서쪽에 위치한 봉화산까지 능선으로 연결된다.

묘도동 산성은 퇴피식 산성으로 체성은 산 정상에서 서쪽 사면까지 내려오는 동고서저(東高西低)의 형태이다. 체성은 석축된 것으로 추정되며, 성의 평면 형태는 부정형으로 동쪽이 좁고 서쪽이 넓다. 성의 총 둘레는 699m이다. 성 안의 지형은 산 정상에 완만하게 경사진 평탄지가 남서쪽으로 내려오며, 서쪽으로는 계곡이 형성되어 급한 경사를 이룬다. 성곽의 길이는 약 2km이며, 본래는 토성이었으나 후대에 석재로 보축한 흔적이 확인된다.

체성과 관련된 시설로는 문지 2개소가 확인되었다. 수습된 기와의 등면은 부분이

며, 내면에는 베의 흔적이 선명하고 물손질로 면을 정리하였다. 분할면은 내면에서 등면으로 살짝 그은 후 부러뜨렸다. 이러한 수법의 기와는 순천 해룡산성에서 다량으로 출토된 바 있고,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③ 목장

1445년(세종 27) 외침이 없고 동물의 방목에 호조건을 갖춘 곳에 목장을 설치하였는데 국방, 교통 및 식용 용도로 제공하기 위해서 가축을 사육하였으며, 이것은 병조의 사복시(司僕時) 소관이였다. 전남은 도서가 많아 목장설치의 적지였으므로 곳곳에 목장이 설치되었는데 그것은 입식된 동물이 도망갈 수 없기 때문이고 많은 인력과 자재를 투입하여 방책을 만들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묘도에도 이때 목장이 설치되어 곡화목의 소속이 되었다. 곡화목(曲華牧)은 화양면에 설치된 국립목장이었다. 이 곡화목도 장흥부 소관의 고흥 도양목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오다가 1629년(인조7년) 순천부의 곡화목(曲華牧) 분리되었다. 초기에는 목장에 감목관(監牧官)을 두었다가 후기에는 지방 수령이나 도서 지방에 수군이 있는 경우에는 수군의 장이 겸하게 되었다.

묘도의 목장은 지름머리에 설치되었는데 이때 성을 쌓았으며 이것은 목장성이며, 전투를 위한 성이 아니라고 한다. 동국여지승람 순천도호부 산천조에 백야곶(白也串), 돌산도, 묘도의 3곳에 목장이 있다 하였고 여지도서 순천 목장조에 각 목장 별 면적과 말의 수, 목초(건초)의 비축량을 명시했는데 이를 기술한다.

突山島 周135里 馬四百六匹 穀草 33,000束
白也島 周 20里 馬三十二匹 穀草 3,000束
狼島 周20里 馬九匹 3,000束
猫島 牧場收稅屯田封 進馬 二匹 每年八月擇定
養三月內,進上分養則依該寺分定舉行

여기서 묘도조를 살펴보면 '묘도의 목장은 수세를 위하여 둔전으로 하고, 말 두필을 매년 8월에 진상하는데 잘 먹이고 길러서 3개월 이내에 가리고 진상과 분양 등은 당해 사복시에서 이를 가려서 거행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이는 묘도 목장의 부지의 처분과 잔유말의 처분 방법을 제시 한 것으로 폐지를 뜻하는 것인바 순천부 읍지부사례 목장조가 이를 뒷받침한다.

1793년 발행된 순천읍지 곡화목 목지 및 사례에 '貓島 南北長七里, 東西四里, 在本府地三日浦面, 在東谷下, 民戶九十四戶'라 하였으니 '묘도목장은 남북의 길이가 7리요 동서의 넓이가 4리이며 순천부의 땅 삼일포면에 있고 좌기청(관리소)은 동쪽 계곡 아래 있으며 민호는 94호이다.' 라고 목장의 크기, 관청의 위치, 거주호수 등을 기록 하고 있다. 목장이 폐기된 후에도 묘도에는 공공기관이나 시설이 있었는데 묘도관속질(精島官國決 1895. 3. 현재)에서 이를 열거하고 있다.

즉, 묘도에는 건물로써 좌기청(座起) 3칸, 원세고(元祕庫) 1칸, 환상고(還上庫) 2칸 이고 소속 인員으로는 감관(監官) 1명, 창직(直) 1명, 진부(夫) 1명 등이 그것이다.

좌기청은 말단 행정기관의 사무소이며 원세고는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여 서울로 보내기 전에 일시 보관하는 창고이고 환상고는 춘궁기에 백성들에게 곡식을 빌려 주고 가을에 이자를 붙여 걷어들인 곡식 즉 환곡을 보관하는 창고를 말한다.

감관은 이조 때 중앙의 각 관아(官衙) 및 궁방(宮)과 각 지방의 금전출납을 맡아보던 관리였다. 각 지방의 곡식을 서울로 운반할 때 그 지방의 감관은 색리(色吏)와 함께 이를 수송 관청에 바쳤다. 배에 타는 감관을 영선감관(官), 곡식을 바치는 감관을 봉상감관(上官)이라 부르며 서울로 올라갈 때 그 지방의 관리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다. 감관은 사대부(士大夫)에서 선발하는데 이를 기피하면 도피차역율(差)로 처단했다.

제도명칭, 세율 등 창직은 창고관리인이며 진부는 뱃사공이다. 삼국시대부터 비롯된 환곡은 많은 변천을 거듭해 오다가 1917년 사환미(환곡) 조례를 폐지하고 사환미를 각 부락의 기본재산으로 전환 시킴에 따라 완전 폐지되었는데 묘도에는 이때까지 전기한 기구들이 상존했었다. 사환미(未)가 1899년 돌산군수 서병수(壽)가 발행한 여산지에 의하면 태인면의 18석 11두 65홉 6작이 있다고 기록했는데 인근 도서들은 불문으로 하고 태인도와 묘도만을 대상으로 한다면 태인도는 주회 35회 3개 부락(하동고지, 장내도촌)이 있고 묘도는 주회 80회이고 3개 부락(창촌, 읍동, 온동)이 있다 하여 묘도가 큰 것을 알 수 있는 바, 상기 사환미 중 절반은 묘도 환상고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¹¹

11 참고: 여천시지 여천시문화원. 1998

마. 역사기록

1) 묘도와 정유재란¹²

묘도는 예부터 중요한 교통로이자 산물이 풍부한 섬진강하구, 백제와 신라의 경계,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라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임진왜란의 막을 내렸던 정유재란 마지막 싸움터로서 특히 정유재란 때는 조선과 명나라, 일본 동양 3국이 피를 흘렸던 역사의 현장이라는 점에서 그 역사적 의의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다. 먼저 정유재란 당시 묘도를 중심으로 전개된 전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묘도는 광양만의 중심부에 있어 지리적 이점을 갖춘 천혜의 요새로써 임진왜란 때는 수군의 활동 거점이 되었다. 1597년 동, 중, 서, 수로(水路) 등 4군으로 편성한 조(朝), 명(明) 연합군의 수로군 도독명의 진린(陣)이 수군 5,000명과 전함 600척을 이끌고 순천 왜교에 있는 일본군을 치기 위해 9월 18일 완도군 고금도를 출발, 9월 20일 도독포에 도착하였다. 이튿날 첫 싸움에서 장도에 비축한 적의 군량들을 불사르고 왜성을 공격하였다. 1598년 9월 22일 아군은 수륙양면으로 협공했었으나 적의 완강한 저항으로 피해만 발생하였는데 사도침사 황세득(黃世得)을 비롯하여 연합군 800명이 전사하였다.

1598년 10월 3일 3차 공격을 하였는데 수군은 왜교 부근에 상륙하였으나 육군의 불참으로 전투다운 전투를 못하고 명의 함선 23척만 파괴당했다. 1598년 10월 4일 제 4차 공격을 시도했으나 육군이 불참하였고 도원수 권율로부터 명군(明軍)이 후퇴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명군의 유정은 왜군의 휴전 제의와 뇌물 공세에 10월 6일 조선육군을 먼저 철수시키고 10월 7일엔 명나라 군사도 지금의 순천시 주암면으로 철수해 버렸다. 이렇게 되자 수군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할 수 없으므로 1598년 10월 9일 도독포를 철수하여 고금도로 귀환하니 진린 제독과 이순신 장군은 도독포에 19일간을 머물렀으며 이것이 제1차 주둔이다.

유정과 왜장 고니시 유키나가와의 휴전협정으로 1598년 11월 10일 일본군이 철수하게 되자 이순신 장군은 적의 퇴로를 차단 섬멸코자 진린에게 연락 1598년 11월 11일 진린 제독이 도독포에 도착하니 이것이 제2차 주둔이며 동년 11월 18일 함대를 노량으로 이동시켰으니 7일간을 머물렀었고 남해 부근의 미락포에 배진한 이순신 장군은 11월 19일 새벽 전투에서 유탄에 맞아 전사하니 장군에게는 도독포에서 보낸 밤이 조국의 땅에서는 마지막이었고 도독포에는 명의 수군 대장과 조선의 수군대장이 1, 2차에 걸쳐 27일간을 머물렀던 곳이다.

12 참조: 여천시사 여천시문화원. 1998

2) 묘도를 중심으로 한 정유재란에 관한 자료

① 난중일기

1598년(무술년) 9월

15일(정유) 맑음. 진도독과 함께 일제히 행군하여 나로도(고흥군)에 닿아 잤다.

16일(무술) 맑음. 나로도에 머물르며 도독과 술을 마셨다.

17일(기해) 맑음. 나로도에 머물면서 진도독과 함께 술을 마셨다.

18일(경자) 맑음. 오후 2시경에 행군하여 방답(주:여천군 돌산)에 당도하였다.

19일(신축) 맑음. 아침에 좌수영 앞바다로 옮겨 머무니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 참담할 뿐이었다. 자정 무렵에 달빛을 타고 하개도에 옮겨 대었다가 날이 밝기 전에 다시 행군하였다.

20일(임인) 맑음. 오전 8시경에 유도에 닿으니 명나라 장수 육군제독 유정이 벌써 진군 하였다. 바다와 육지에서 힘을 합하여 공격하니 적의 기세가 크게 꺾여 두려워하므로 수군이 드나들며 대포를 쏘아댔다.

10월초 1일(계축) 맑음. 진도독이 새벽녘에 유제독에게로 가서 잠시 이야기 나누었다.

11월초 8일 도독부를 방문하여 위로연을 베풀어 하루 종일 술을 마시다가 저물어 서야 돌아왔다. 잠시 후 도독이 보자고 하므로 나갔더니, 도독이 말하기를 순천 왜교의 적들이 초 10일 사이에 동맹해, 철퇴하라는 전갈이 육지에서 통문으로 왔으니 급히 진군하여 돌아가는 길을 끊어 막자고 했다.

초 9일 도독과 함께 일제히 행군하여 백서량에 당도하여 진을 쳤다.

초 10일 좌수영 앞바다에 당도하여 진을 쳤다.

13일 왜선 10여척이 장도에 나오므로 바로 도독과 약속하고 해군을 거느리고 뒤 쫓으니 왜선은 잔뜩 겁을 먹고 들어가 종일토록 나오지 않았다. 도독과 함께 다시 장도로 돌아와 진을 쳤다.

14일 왜선 두 척이 강화하기 위하여 바다 한가운데까지 나왔기 때문에 도독이 왜말 통역관을 시켜 조용히 왜선을 마중하여 붉은기, 환도 등의 물건을 받았다. 오후 8시경에 왜장이 작은 배를 타고 독부로 와서 돼지 2마리, 술 2통을 도독에게 바친 후 돌아갔다.

15일 이른 아침에 도독을 찾아가 보고 잠시 이야기 한 후 돌아왔다.

왜선 2척이 강화를 위해 두 번 세 번 도독의 진중을 드나드는 것이었다.

16일 도독이 왜영으로 진무동을 들여보내자 잠시 후 왜선 3척이 말 한필, 창, 칼, 등을 가져와 도독에게 바쳤다.

17일 어제 북병장 발포 만호 소계남과 당진포 만호 조효열 등이, 왜의 중간배 한 척이 군량을 가득 싣고 남해에서 부터 바다를 건너자 한산도 앞바다까지 뒤 쫓았더니, 왜

적은 모두 기습을 타고 육지로 달아나 버렸다. 그들이 잡을 왜선과 군량은 모조리 명나라 군사에게 빼앗기고 빈손으로 돌아와서 보고 하였다.

② 임진잡록(壬辰雜錄, 무술년 11월 12일)

행장이 먼저 10여척을 출발 시켜 묘도 밖에 이르니, 우리 수군이 모두 쳐부수어 죽였다. 행장은 성이 나서 40명의 명군을 구속하고 두사람의 팔을 잘라서 유정의 진으로 내보내며 말하기를, “제독이 나를 속이기를 전후해 이와 같이 하니, 나는 가지 아니하겠소.”하였다.

3) 잘못된 임란(壬亂) 해전사(海戰史) 유도(猶島)와 묘도(猫島)

지금까지 발간된 임진왜란 관련 사료의 주석과 해설에 유도(猶島) 혹은 유도(猶島)는 광양군 골약면 송도, 또는 여천군 울촌면 송도로 되어있다. 그러나 유도는 송도가 아니라 묘도인 것이다. 유도가 송도가 아니고 묘도라는 사실은 난중일기만 잘 살펴봐도 알 수 있었을 뿐 아니라 몇 종류의 고지도를 살펴 볼 수 있는 성의만 있었다면 이런 오류는 없었을 것이다. 유도를 송도로 잘못 해석된 광양만을 중심으로 전개된 정유재란의 해전사는 당연히 재구성 되어야한다.

먼저 난중일기(亂中日記)와 난중잡록(亂中雜錄)를 통해서 유도를 재해석 해보면 다음과 같다.

亂中日記 戊戌 (宣祖三十一年, 1598년, 54세)

九月二十日 壬寅 晴 辰時到柚島 則陸天將劉提督 已爲進兵 水陸俱挾 敵氣大挫

多有惶懼之色 舟師出入放砲

十一月十一日 到柚島結陣

十二日 (난중일기에는 기록이 없음)

亂中雜錄의 十一月 十二日 기록에 行長先發十餘隻 至猫島外舟師盡破殺之 後略

“행장의 선발 10여척을 묘도 밖에 이르러 수군이 모조리 격파하여 죽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위의 기록을 살펴보면 유도(여천군 울촌면 송도)에 진을 치고 있는데 유도 전방 왜교에 있던 적이 유도의 뒤에 위치해 있는 묘도에서 출현했다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것은 유도를 묘도로 해석하면 아무런 무리 없이 자연스럽게 해석된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에 발행되는 책에서 조차 행정구역을 여천군 울촌면 대신 광양군 골약면이라고 적고 있어 독자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다음은 고지도를 통해서 살펴본 유도와 묘도, 송도의 위치다.



여지도_전라도편



해동지도_순천부

묘도를 유도라 표기한 또 다른 예는,

한국지리지총서 읍지 5. 전라도 ② (아세아문화사, 1895)에 開國504年 3月 日 順天牧場事例成冊의 各班官屬秩에 猫島 座起廳三間, 元稅庫一間, 還上庫二間, 監官一名, 倉直一名, 津夫一名라는 기록과 結摠에 猫島 三十五結, 戶摠에 猫島 六十戶라는 기록을 볼 때 묘도와 유도를 같이 쓰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同治十年(1871) 十月 日 曲華牧牧誌及事例에 猫島 南北長七里東西廣四里在本府地三日浦面座起廳東谷下民戶九十四戶라는 기록이 묘도와 유도는 같은 섬인 것을 확실히 증명해 주고 있다.¹³

13 여천시사

4) 충무공 유적 지명논란 ‘마침표’¹⁴

조·명 연합 작전지 유도는 송도 아닌 묘도. 노승석 박사, 난중일기 초서체 완전 해독

여수지역 이충무공유적과 관련한 지명해석의 논란에 종지부를 찍게 됐다.

난중일기 1598년 9월 20일자에 조선수군과 명나라 육군이 수륙협공을 펼치는 장면에서 유도(〈島·현재 전남 여수시 송도)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이는 묘도(貓島·전남 여수시 묘도동을 이루는 섬)의 오독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최근 초서전문가 노승석(盧丞奭·36) 씨가 한자 초서체로 된 난중일기를 해독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노 씨는 2003년 10월 문화재청이 주관한 국보급 문화재기록물의 DB화 작업에 참여하면서 전체 13만 자를 완전 해독하는 과정에서 ‘난중일기초’에 수록되지 않은 부분을 추가 해독한 글자 수가 8500여 자에 이르며, 오류를 발견한 곳은 100여 곳, 150여 자에 달한다고 밝혔다. 난중일기는 부록인 서간첩과 임진장초(임금에게 올린 장계의 초안)를 포함해 9책으로 돼 있다. 전체 글자수가 13만여 자에 이르는 데다 한문 초서체로 이뤄졌다.

노씨는 “1795년 정조의 명으로 이를 정자(正字)화한 ‘충무공전서’도 초서체 해독의 어려움 때문에 60%가량이 누락됐다. 1935년 조선사편수회에서 서간첩과 임진장초를 제외한 난중일기 필사본 7책 분량을 정자화한 ‘난중일기초’를 펴냈고 이는 1960년 노산 이은상(鷲山 李殷相)이 번역한 ‘난중일기’ 등 수많은 번역본의 교범이 됐다. 하지만 이 역시 여러 대목이 누락돼 있고 오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여수지역 유적지 표기도 노산 이은상이 난중일기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양이가 묘(貓)자를 유자 유(柚)자로 번역하면서 유도(柚島)를 송도로 인식해 왔다. 또, 이후 이충무공과 관련한 모든 역사서와 지도에서도 유도가 송도로 표기돼 왔다. 하지만 이 같은 표기는 1998년 2월 여천시문화원에서 펴낸 ‘여천시지’ 역사편에서 ‘울촌 송도가 아닌 여천시 묘도’로 번역하면서 논란이 됐다.

14 강성훈 기자 2005.10.21 남해안 신문

<http://www.nh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5391>

당시 역사편을 집필했던 김병호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이사는 “유도는 송도가 아닌 묘도가 분명한데도 그동안 잘못 번역된 기록을 따르다보니 대부분의 기록물에서 송도로 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오류 표기는 최근까지 발행된 모든 간행물과 지도에서도 그대로 발견되어 왔다.

김병호 이사는 이와 관련 “지역 향토사학자들이 주장했던 사실이 뒤늦게나마 공식적으로 인정받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크게 환영한다”면서 “향후에도 역사기록과정에서 지역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노씨가 최종 마무리 작업에 들어간 ‘완역 난중일기’는 이달말 발간될 예정으로 그동안 조명되지 못했던 충무공 주변 인물들과 그동안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역사적 사실들이 소개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바. 문화 관광자원

1) 묘도 도독마을

묘도의 도독마을은 정유재란 때 명나라 제독 진린(陳璘, 1543~1607)과 관련된 지명이다. 진린 도독과 관련된 도독마을의 유래담과 관련하여 전한다.

진린의 자는 조작(朝爵), 호는 용애(龍崖)이며, 1548년 중국 광둥에서 태어났다. 19세 어린 나이에 연대장격인 파총에 발탁되어 광동성에서 발생한 20여건의 소요사건을 평정하여 신중으로부터 크게 인정을 받았다. 1597년 정유재란으로 명의 변방까지 시끄럽자 신중은 산둥 지방의 왜구 방어의 책임을 지고 있던 진린을 흠차총수병어왜총병관 전군도독부도독수군도독으로 임명한다.

『선조실록』에 나타난 바로는, 전투에도 참전하지 않고 외곽에서 구경만 하던 그들은 우리 수군이 거둔 적의 수급을 협박해서 가져갔고 번번이 이순신 장군의 출전을 방해하기까지 했다. 이런 불상사는 오래가지 않았다.

1598년(선조 31) 9월 21일, 진린 도독은 수군 5천 명과 전함 5백 척을 거느리고 고금도를 출발하여 순천 왜성에 갇혀 있던 왜적을 섬멸하려고 묘도에 진을 쳤다. 진린은 이틀 동안 군장을 수습하고 나서 곧바로 장도에 비축한 적의 군량을 불살랐고 왜성을 공격했지만 진린은 적의 퇴로를 열어주는 왜장의 휴전 제의에 넘어가 병력과 함께 1598년

10월 9일 고금도로 철수했다. 진린은 적들의 뇌물 공세에 잠깐 마음이 흔들렸으나, 이순신 장군의 강력한 설득으로 1598년 11월 11일 다시 묘도에 진을 친 뒤 노량해전에 참전한다. 이로써 진린이 묘도에 진을 친 기간은 27일이 되는데 묘도의 도둑마을이 바로 그 흔적의 터이다.



전란은 적선 500여 척을 섬멸하고 끝이 났다. 진린은 전란을 치른 동안 이순신 장군의 지휘력과 전략 전술 그리고 이순신의 인품에 깊이 탄복해 마지않았고 종종 지휘권도 양보했다. 전란이 끝나고 진린은 1599년(선조 32) 4월 명나라로 돌아갔다. 진린은 조선에서의 전공으로 광동백에 봉해지고 사후에 태자소보에 추증되었다.

『여천시 마을유래지』에 의하면 도둑마을은 정유재란 당시에 명나라 진린 장군의 수군이 진을 친 데서 지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까지도 진린의 직함을 따라 도둑포, 도둑개라고 불리며 임진왜란 때 조명연합군이 주둔했던 격전지를 마을 이름으로 삼은 것이다.

2) 조·명 연합군 스토리를 활용한 테마 공간 조성

한·중의 화합과 동북아 평화를 상징하는 장소로서 의미를 되살릴 수 있도록 하여 이순신 대교, 봉화산 전망공원과 연계한 관광자원 확충을 위해 테마 공간을 조성하였다.

- 위치 :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 410번지 일원
- 면적 : 29,534.2㎡
- 공사기간 : 2020년 9월 ~ 2022년 9월



조·명 연합수군 테마공원 조성

3) 이순신대교

2007~2012년 준공된 여수국가산단 집입도로 개설공사는 여수산단과 광양산단을 직통으로 연결하는 4차선 도로건설사업으로 총 8.55km에 사업비 1조 413억원이 투입된 대역사이다. 콘크리트 주탑은 270m로 세계 최고 높이를 자랑하고 있다.

바다에서 상관까지의 높이가 최대 85m, 평균 71m이며, 주탑 사이 선박운행 가능 폭은 1,310m로 길이 440m의 18,000TEU급 초대형 컨테이너 선박 2개가 양방향으로 운항할 수 있다. 이순신대교의 주경간장을 1,545m로 설계한 것은 충무공 이순신 장군이 태어난 해인 1545년을 기념하기 위해서이다.



이순신대교

3. 섬생활의 변천

가. 생업

1970년대 말 창촌과 읍동에서 양파, 대파 등의 원예작물의 재배도 시도해 봤으나 거리와 판로관계로 지지부진 했고 1975년도부터 창촌과 묘읍을 잇는 봉화산의 동남서 3방면의 경작지에 유자나무를 식재하여 그 면적이 약 2ha에 달했으며 작목반을 조직운영하기도 했었다.

1972년 도독포 거주 박삼병(朴三秉)은 미꾸라지 양식을 지도소의 지원을 받아 시도했으나 실패하였고 1990년엔 읍동 거주 장산순이 묘읍 저수지위 광양포 입구의 능선에

50여명의 우사를 신축 100여두의 한우를 입상하므로 축산업이 뿌리를 내리려는가 싶더니 저수지 오염이란 주민들의 반발로 폐업하고 말았다.

답 면적은 92ha중 창몰이 42ha로 가장 많고 온동 22ha, 묘읍12ha 순이나 창몰과 묘읍들에 편재하며 묘읍의 답작지대가 묘도의 곡창지대를 이룬다. 묘도의 유일한 저수지는 수리 안전답에 가깝고 수량성도 높다. 그 밖의 논들은 계단식에 천수답이며 생산성 또한 보잘 것 없다.



유두머리 논물 채우기

1968년도 한해 때 개발된 관정은 8개인데 창촌 3개, 묘읍 3개, 온동 2개로 창촌은 마을 앞 서편산기슭, 옛끝, 선장개에 하나씩 설치됐고 묘읍엔 마을앞의 논들입구, 저수지밑, 광양포의 논들골짜기 등 세 곳이며 온동에는 도독포의 서편 산기슭과 혼동마을의 서편 산기슭에 각각 하나씩 있었다.

묘도의 농민들은 미곡에 대한 선호도가 타 지역보다 높아서 증산의욕이 강했다. 토양개량, 못자리개량, 이앙방법개선, 비배관리, 병충해방제 등 수도작 경영전반에 관한 선도적 역할을 한 사람은 묘읍 거주 이상모(李)였으며 그는 학습 단체 임원으로써 많은 시범포를 운영했었다.

묘도의 간척사업은 1943년부터 시작되었다. 여천 지방의 간척사업을 도맡아 왔던 다카세 농장(高瀬農場)의 관리자 나가오까(우리말로 영광무시라 부름)가 선장개의 간척 허가를 얻어 공사 도중 해방으로 인하여 시공자가 귀국함으로써 방치되었다가 1950년

대 이후 창물거주 심창식(沈昌植)이 매립허가를 얻어 2년만에 완공시켰다. 경작자들이 연고권을 앞세워 소유권을 주장하는 바람에 법정문제로까지 비하됐으나 사유지와 공유지로 구분 조정되었다 한다.

제2차 간척사업은 1963년부터 시작되었다. 묘읍거주(묘도 1774번지) 정기섭(鄭燮)이 1963년 초에 큰빨들의 방조제와 19ha의 농지조성 허가를 받아 1963년 8월 중순에 착공하였다. 1967년 12월 31일이 완공일인데 정기섭은 1965년부터 자금난에 허덕이면서 애로를 겪다가 그것마저 중단되어 버렸기 때문에 개인자금 4,800여만을 투자한 채 준공검사를 받지 못했다 한다. 광양제철소에서 부지매립과 항만준설로 인한 피해 우려 지역의 해안과 토지를 매수하려고 연고권이 있는 자들의 동의를 구할 때였다. 정기섭은 이에 불응했으나 이미 빨 물이 들어오고 경지로써는 값어치가 없으므로 동의해 주자는 경작자들과 주위의 권고를 저버릴 수가 없어 동의하고 말았다.

공사는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간척지에 들어온 빨물은 허리춤까지 찰 정도여서 경작자들은 광양제철 건설사무소로 경작 보상을 받았다. 건설사무소는 공유수면 매립허가를 받은지라 공사가 완료됨에 따라서 매립면적 등기등록을 하면서 묘읍의 간척지도 포함시켜 버렸다.

정기섭은 지법과 고법을 경유 대법원까지 소송을 제기했으나 수백만원에 달하는 공탁금을 마련할 수 없어 재판을 중지하고 말았다고 전언했다.

해안선의 길이는 16.3km에 달하는데 창물이 가장 길고 온동이 그 다음이며 묘읍이 제일 짧다. 3종 어업권의 면적은 온동, 창물, 묘읍 순위이다. 온동의 3종 어업권내에서는 바지락, 고막, 백합, 소라 등의 패류와 낙지, 해삼 등의 연체류, 게, 썩 등의 갑각류가 서식하며 해태도 채취되었다. 이곳의 해태는 돌김이라 해서 별미를 갖고 있었다. 온동과 도독포의 마을 앞에 석방도 설치됐었고 바다 가운데는 죽방도 많이 있었다. 창물의 엿끝 앞 누른 섬 부근은 연륙되기 전에는 간조 시에 맛과 개불이 많이 잡혀 지신도의 맛과 우순도의 개불을 탐하지 않았다고 한다.

근해에선 각종 어종이 어획되는데 송어, 농어, 전어, 갈치, 양태, 서대, 넙치, 감숭어, 뿔락, 밀정어, 장어, 문어 등이 주로 잡히고 패류 양식이 성행하는 바 새조개 양식은 각 부락마다 공유한 수면들을 양식업자에게 일정한 기간 동안 임대하여 주고 약정된 임대료를 받는다. 묘도 근해에선 새조개의 성장율이 좋아 단가 형성만 좋으면 실패율이 적

다. 한때는 해상의 무법자들이 양식장에 침입 새조개를 밀채취하는 사례도 종종 발생했다. 소위 독고다이라 별칭되는 이들은 살인도 불사했으므로 밤이면 해상출입을 자제함은 물론 정사복 경찰이 투입되어 해상질서를 바로 잡기도 했었다.

묘도에는 5개의 어촌계가 있으며 5개의 어항이 있다.



창촌마을의 벼수확



도독마을의 바지락작업

나. 교통·선박

1) 해상교통

나룻배는 섬사람들에겐 중요한 교통수단이며 생명선이다. 부곡이나 목장시절 때에도 정기적 취항은 아니지만 나룻배는 있었을 것이다.

기록상 정규 사공이 있었던 것은 1793년 이후 원세고와 환상고가 설치되면서부터 진부라는 이름으로 배치되었음을 역사편에서 살펴 본 바다. 정규도선(나룻배)이 취항한 것은 1925년 이후 부터이다.

같은해 여천 관내에서는 최초로 중흥초등학교가 개교됨에 따라 학생수송 목적으로 취항한 것이 최초의 정규도선이다. 처음엔 등·하교 시간에 맞추어 하루에 2회씩 1,750m의 묘도 적량 선창간을 운항했다. 3, 4년을 이렇게 운영하다가 아침배라 해서 등교시간, 12시 사이에 1회, 하교시간, 이후 막배 등 1일 4회를 운항하는 진전을 보았다. 이후 차차 취항시간이 연장되어 운영하는데 오전 중에는 매 30분마다 오후엔 매 시간마다 운항했다.

최초의 도선은 3톤 미만의 목조 범선을 1942년까지 운영하다가 본 선체에 동력엔

진을 부착 해방될 때까지 운항 했었다. 해방 후 5, 6년간 다시 목조 범선을 취항시켰는데 혼란기의 유류 사정 때문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 다시 동력선으로 바뀌었고 1967년 9월 3일 최초로 국비와 지방비 그리고 주민 부담으로 동력선 진흥호가 건조돼 10월에 취항하였다.

최초의 도선 운영자는 창물 거주, 정(丁)씨였고 정씨는 수년간 도선을 운영하다 역시 창물거주 김순영(金順永)에게 운영권을 이양했고, 1940년대에 김순영은 김성석(金性: 창물)에게 운영권을 잠시 넘겨주고 청진으로 돈벌이를 갔다가 해방 전에 귀향 1950년대 중반부터 도선의 실권을 회복했다.

1967년 10월 국비 지원의 진흥호가 취항하게 되었고 선비문제로 의견이 분분하자 김순영은 도선 운영권을 도중(島中)으로 이양하였다. 이후 각 부락의 대표로 도선운영위원회가 조직 운영 되므로서 도선의 운영권을 입찰에 붙여 문제를 해결하였다.

1967년 이전까지의 도선운임은 묘도 주민에겐 하·추곡으로 각각 1두씩 호당 균등 지불하였고 타 지역 사람이 묘도에 출입할 때는 현금 지불했으며 공직자는 무료였다.

1967년 10월 진흥호가 취항하면서부터 현물급은 없어지고 현금지불로 되었으며 운임은 도선위원회에서 결정한다.

1950년 1월 14일 오후 4시30분경 묘도 선창에서 750여m 떨어진 소당도(蘇堂島) 부근에서 강풍에 휩싸여 도선이 전복하였다. 이 사고로 승선인원 42명중 29명이 사망한 대형 사고였다. 그후 1987년 2월 충청호(21톤), 1990년 10월 묘도1호(41톤)가 차례로, 진수 운영되었다.



묘도를 마지막 운항하던 도선(2009년)

2012년 5월 여수엑스포 개최를 기점으로 묘도대교로 월내동과 연결되고, 이순신대교로 광양시와 개통으로 여수-묘도항로 도선 2척이 전면 폐쇄 되었다.¹⁵

15 참고 : 여천시지, 1998 여천시문화원

2) 육상교통

1974년까지만 해도 묘도 도내(島內)의 도로는 손수레도 다니기 힘든 보잘 것 없는 것이었다. 다섯 개의 자연부락을 연결하는 사잇길은 협곡과 능선의 연속이었다. 새마을 사업과 더불어 마을 안길에서 부터 넓어지기 시작한 도로는 1986년도에 창촌, 묘읍 간의 1.8km가 확포장 되었고 1987년도에 묘읍, 운동간의 1.25km가 확포장 되었는데 1988년도에는 운동, 도독포간의 1.75km가 확포장 되었다.

1990년도에 해안도로가 완공되고 창촌과 광양포간의 도로가 개설 정비됨으로써 도내를 일주할 수 있는 도로망이 완비된 것이다. 묘도의 도로연장은 창촌~묘읍~운동~도독~창촌 노선이 6.9km이며 진입로와 삼거리에서 광양포까지 1.8km를 합하면 총 9.7km이다.

1986년 도내운행의 택시영업 면허를 묘읍 출신의 김윤익이 취득 운영하다가 경영이 어려워 시내로 사업지를 옮김에 따라 없어지고 시내버스가 읍동까지만 운영됨으로써 공영버스체제의 새마을 버스가 들어와 개인사업자로 박승중(67)씨가 새마을버스를 읍동마을에서 운동마을과 도독마을 3개마을을 시내버스 시간에 맞춰 하루 15회 순회 운영한다.



묘도 차도선 취향식(1998)



읍동의 새마을 버스

미래의 묘도는 그린 에너지의 중심지로 발전한다. 여수반도 북동쪽 광양만에 자리하는 묘도는 고양이를 닮은 섬이라 해서 우리말의 괴섬이 한문화 되면서 묘도가 되었다. 인근에 공업단지가 들어서기 전만해도 섬진강 하구에 자리한 덕에 해산물이 넘쳐나는 황금어장으로 불렸었다. 점차 공업단지가 들어서므로 해서 어장은 황폐화 되었고 대기 와 해양 오염으로 직접적이니 피해에 허덕여 왔다.

2010년대에는 광양만 준설토 매립지로 인해 웅덩이에 고인물 때문에 모기가 번식하여 살을 앓았는데 당시 보도자료를 보면 검은 염소가 모기가 얼마나 붙어 있는지 하얀염소로 보인다 했으니 하마터면 고양이 섬이 모기섬이 될 뻔 했지만 좋은 소식이 들려온다.

2020년 (주)한양에서 94만평 매립지에 동북아 LNG(액화천연가스)허브터미널을 착공하였고 2026년 1단계 사업 준공을 눈앞에 두고 건설 공사가 한창이다. ‘동북아 LNG 허브 터미널’은 LNG 저장, 공급, 트레이딩까지 가능하다.

기존 LNG 터미널은 주로 민간발전사들의 자가소비용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는 반면, 묘도 터미널은 국내 LNG 직수입자 누구나 이용 가능하며 글로벌 트레이더들이 LNG 저장·재반출까지도 할 수 있다. 여수·광양만권 중심에 위치한 묘도는 LNG 허브 터미널의 입지조건중 가장 중요한 항로·항만 조건이 매우 뛰어나고 태풍 등 자연재해가 적고 넓은 매립지가 이미 확보된 상황이어서 연관사업에 대한 확장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특히 인근에 인근에 광양제철 연관단지와 여수산단이 위치하여 수요처가 밀집되어 있으며, LNG 터미널, 수소 등 그린에너지 터미널 운용에 중요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서 우리나라 남부지역의 에너지 메카로 부상될 것으로 점쳐진다. 올해 9월 공사계획 승인을 받은 LNG 저장탱크 3, 4호기는 묘도 내 입지하는 천연가스 발전소와 여수산단 내 입지하는 발전소에 가스공사 배관시설을 통하지 않고 직배관으로 공급하는 사업모델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수 LNG 터미널을 전초기지로 묘도에 ‘탄소중립 에너지 허브’가 조성 된다면 전국에서 두 번째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여수와 광양 지역이 환경 친화적이고 오염이 없는 그린에너지로 바뀌어 묘도와 인근 도시의 대기 질도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주)한양의 목표대로라면 묘도를 수소(약 연간 100만 톤)수입·생산·저장·수출·공급이 가능한 터미널과 암모니아 수입·저장·공급 터미널, 이산화탄소 포집·저장·수출 터미널 건설을 통한 ‘그린에너지 허브’로 조성해 여수·광양항 탄소중립 경제 실현의 핵심 전략기지로 조성되는 것이다. 탄소중립 에너지 허브란 항만 내 탄소중립 에너지 생태계를 갖춘 에너지 생산·물류·소비 거점을 의미한다.

묘도 탄소중립 에너지 허브는 국제 수출입 에너지 물류를 담당하고 국내 에너지 공급 인프라를 보유하게 될 예정이다. 또한 대규모 탄소중립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인접함으로써 인프라 투자 위험을 감소시키고 국가적인 탄소중립 계획 실현을 촉진할 것이다.

향후 수소사업, LNG 복합발전 및 수소 혼소발전 사업, 수소 공급 인프라 구축 사업 등을 통해 전 세계 탈탄소와 2050 넷제로(Net-Zero) 전략에 동참할 계획이다. 향후 추진 예정인 2050 탄소중립에 따른 여수 묘도 그린에너지 허브 구축 사업에도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천연가스 배관망의 원활한 이용을 통한 가스 송출이 가능하도록 가스배관 인프라 확충과 제도개선과 여수·광양만권 탄소중립 에너지 허브 구축을 위한 송전선로 추가(신재생 선로 등) 건설·개선(AC에서 DC로 전환)과 송전선로 민자 SPC 사업 또한 최우선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¹⁶



다. 공공기관

1) 묘도동주민센터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묘도동의 행정 업무를 맡아보는 기관으로 묘도동의 행정, 민원 및 주민의 복리 증진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① 변천

1914년 돌산군 태인면 관할에서 여수군 삼일면 관할이 되었고, 1949년 여수군 삼

16 참고: 주식회사 한양 공식블로그(2022.4.8.)

일면 묘도리로 행정구역이 변경되었다. 1980년 12월 1일 전라남도 여천군 삼일읍 묘도리로 이름이 바뀌었고, 1986년 1월 1일 여천시 승격으로 묘도동사무소가 설치되었다. 1998년 4월 1일 여천시·여천군·여수시의 삼여통합으로 여수시 묘도동사무소가 설립되었다. 2007년 9월 1일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묘도동주민센터로 이름이 바뀌었다.

② 주요사업과 업무

주민등록 등·초본 열람 및 발급, 가족관계등록부 발급, 전입신고, 출생 및 사망 신고, 주민등록증 신규 및 재발급, 인감 신고와 인감 증명서 발급, 납세 완납 증명서, 세목별 과세 증명,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수급자 조사 및 관리, 의료 보호 대상자 증명, 모자 가정 증명, 장애인 증명,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취학 아동 조사 및 통지서 발부 등과 관련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한다. 또한 각종 민원 발급뿐만 아니라 주민 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 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운영과 함께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역점을 두고 있다.

주요사업으로는 2001년부터 동민체육대회와 정월대보름축제를 개최하고 있다. 또 깨끗한 해안을 가꾸기 위해 매월 해안 정화활동에도 힘을 쏟고 있다. 2015년 이순신대교 홍보관 앞에 환영 문구를 식재하기도 하였으며, 2020년 쓰레기 외부 노출을 막는 친환경적 목조 집하장 시설을 설치하였다. 2021년 미세먼지 잡는 정화식물 케나프를 시범 식재하기도 하였다.



묘도동주민센터

③ 현황

관할 면적은 2021년 6월 기준 11.52km²이며 관할 행정 구역은 묘도동 1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묘도동주민센터는 2층 건물로 1층 사무실에는 행정민원과 주민생활지원 등을 담당하는 직원들이 근무하고 있으며 2층은 주민자치센터로 활용하고 있다. 관할 인구는 2021년 9월 1일 현재 총 619세대, 1,157명(남 602명, 여 555명)이다. 조직은 동장을 비롯하여 총 12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¹⁷

2) 묘도사립학교

1935년 묘도동 995번지 전 좌기청 청사에서 개교하여 30여명의 학생을 수용 초등교육 과정을 교육시켰으며 교사는 심상갑(相甲)이었다. 본교는 1941년 중흥초등학교 묘도간이학교가 설립인가 될 때까지 존속했고 심교사는 해방과 더불어 정규교직에 진출하였고 교장으로 승진하여 여천시군 관내의 초등학교를 두루 거치며 2세 교육에 열성을 바쳤다.

3) 묘도재건학교

1971년에 묘도동 992번지 현 노인정에 개교하여 40명의 상급학교 미진학 학생을 수용 중학교 과정을 교육시켰다. 재건학교는 1973년까지 존속했으며 교사는 김재빈(金在相)이었다.

4) 상암초등학교 묘도분교장



상암초등학교 묘도분교장

전라남도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공립 초등학교 분교장.

스스로 찾아 배움을 즐기는 창의적인 어린이, 존중·배려·나눔을 실천하는 품성이

17 묘도동주민센터-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바른 어린이, 문화·예술·체육을 사랑하는 심신이 건강한 어린이 육성을 교육목표로 하고 있다.

① 변천

| | | |
|----|--------------|---------------------------|
| 연혁 | 1941년 5월 12일 | 중흥공립국민학교 부설 묘도간이학교로 설립 인가 |
| | 1944년 5월 16일 | 묘도국민학교로 승격 |
| | 1970년 3월 16일 | 묘도국민학교 운동분교장이 개교 |
| | 1995년 3월 1일 | 폐교 |
| | 1996년 3월 1일 | 여천묘도초등학교 |
| | 2000년 3월 1일 | 묘도초등학교로 개명 |
| | 2010년 2월 11일 | 제61회 졸업생을 포함 총 2,746명 졸업 |
| | 2011년 3월 1일 | 중흥초등학교 묘도분교장으로 축소 |
| | 2012년 3월 1일 | 상암초등학교에 편입 |

② 교육활동

역점 교육으로 아침독서 운동, 독서·토론수업과 대회, 1분 스피치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특색교육으로 골프수업과 외국어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교가 작사 김성태 / 작곡 이은상

높이 솟은 봉화산의 기운을 받아
힘차게 자라나는 묘도의 건아 새 나라 새 일꾼의 기틀이 되리
새로워라 묘도교 문화의 터전

- 교목 : 설송나무는 청렴, 절조, 겸손, 아름다움, 사랑을 상징한다.
- 교화 : 국화는 정열, 사랑, 새 생명이 소생하는 힘을 의미한다.

③ 현황

2021년 3월 1일 현재 총 5개 학급에 20명의 학생 재직.
교직원은 교사 6명과 행정 담당 및 일반직 2명 등이 근무.

5) 삼일중학교 묘도분교

여수시 묘도동에 있었던 공립 중학교 분교장.

1982년 1월 30일 삼일중학교 3학급으로 삼일중학교 묘도분교로 설립인가 되어
1982년 4월 1일 여천시 묘도동 1739-1번지에서 개교하였으나 2010년 2월 졸업생을

마지막으로 배출하고 폐교되었다.

① 교육목표

애국인·실력인·협동인·과학인·건강인 육성을 목표로 실력 있는 학생, 존경받는 교사, 인정받는 학교로서 세계화를 주도할 실력 삼일인 양성을 교육목표로 하였다.

② 교육활동

노력 사업으로 '좋은 책 60권 읽기'를 추진하였다. 이를 위하여 학생들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도서 구입, 다양한 도서실 프로그램 운영, 사제동행 독서시간 운영, 독서 공책 쓰기, 다양한 독서 행사 등을 펼쳤다.

교가

흰 구름 피어나는 봉화산 높고

그 정기 뻗어 내려 터 잡은 전당 여기서 자라나는 세기의 투사

이름도 거룩해라 묘도중학교 아 슬기론 자유와 진리 닦아서 쌓으리라 빛나는 모교

- 교목 : 히말라야시다는 지조를 상징한다.
- 교화 : 백일홍은 무궁을 의미한다.
- 교훈 : 나라 사랑에 힘을 다하자.

6) 묘도우체국

묘도동 우체국은 우편물의 신속·정확한 배달과 안전하고 편리한 종합 금융 서비스의 제공으로 시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되었다. 여수시 묘도동에 있는, 여수우체국 산하 우편·체신 금융기관. 우체국은 국장의 지위나 기능에 따라 우체국을 관할하는 지방우정청과 우편집중국, 집배국, 무집배국으로도 분류된다. 또한 설립 주체에 따라 일반우체국, 별정우체국, 우편취급소 등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4급과 5급우체국은 총괄국으로서 기초자치 단체 단위로 1국씩 설치되고 있다.

일반우체국은 관내국이라 부르며 행정동이나 면단위로 1국씩 설치되며 대개 창구 업무만 담당하고 있는 6급 또는 7급 우체국이다. 별정우체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의 지정을 받아 개인이 부담하여 청사와 시설을 갖추고 국가에서 위임한 체신 업무를 수행하는 우체국을 말한다. 여수묘도동 우체국은 7급우체국에 속한다. 1979년 12월 5일 묘도동우체국으로 개국하였으며, 2015년 10월 31일 여수우체국으로 통폐합되면서 폐국되었다.

① 주요사업과 업무

주로 우편물의 접수, 운송, 배달과 같은 우정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예금이나 보험 등의 금융 업무도 수행하고 있다. 우편 업무로는 국내 우편, 국제 우편, 우체국 택배 등이 있으며 금융 업무로는 예금, 보험, 경조금 배달, 공과금 납부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현황] 2010년 당시 국장 1명(행정 주사보), 직원 1명(우편원) 등 총 2명의 직원이 근무하였다.¹⁸



옛 묘도우체국 건물



보건진료소



임동마을회관



도독마을회관



온동마을회관



묘도어린이집

18 [출처] 한국학중앙연구원 - 향토문화전자대전

4. 민속 문화

가. 당제¹⁹

1) 온동 당산제

조사일자 : 1995. 1. 10.

제보자 : 정영주(남, 85), 방선주(남, 74), 방화실(남, 77), 정선근(남, 78)

① 마을 개관

온동 마을에 제일 먼저 들어온 입향조는 경주 정씨라고 하며, 다음에 남양 방씨가 들어왔다고 한다. 마을 형세를 설명하는 말은 없다. 온동의 옛 이름은 '원들개'라고 했는데, '구례실'이란 들의 왼쪽에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었다고 한다.

생업은 반농반어다. 농사는 주로 마을 뒤의 계단식 논과 밭에 작물을 심고 있다. 어업은 20여년 이전까지는 삼마이나 저인망으로 작업했으나 지금은 주낙으로 민어나 상어 등을 잡는다. 과거에는 어로작업이 매우 활발했으나 지금은 마을 앞바다에 광양제철이 들어서서 고기잡이에 제한을 받는다. 쉽게 고기를 잡을 수 있던 어장을 빼앗기고 출어마저 제한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기잡이가 극도로 위축되어 있다.



온동마을 당산치기(1993년 정민주 작)

② 당산제의 개관과 준비

(1) 명칭 - 당산제, 동제

19 『남도의 민속문화』 최덕원. 밀알출판사

(2) 시기 - 설날 그믐날 저녁 12시 넘어서 지낸다. 고정적이다.

(3) 목적 - 당산제를 통해 잡귀와 병을 막고 마을을 수호할 수 있다고 믿는다.

(4) 제단 - 여섯 당산이다. 각 당산에는 제물을 묻고 덮는 돌이 있다.

- 당산나무 - 동네 뒤 논 가운데에 있다. 원래 있던 나무는 고사하고 지금은 80여년된 채나무이다. 큰당산이라고도 한다.
- 북송정 - 당산나무의 왼편에 있다.
- 청룡등 끝
- 골안 입구 - 동네 오른쪽 바로 뒤
- 재문당
- 꽃밭 밑 옛날에 개나리 꽃이 많이 피었다 한다. 마을 뒤의 평암산에서 왼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청룡등이라 하고 오른쪽으로 뻗은 산줄기를 백호등이라 하는데, 이 여섯 당산은 좌청룡에 3개, 우백호에 3개씩 배치하고 있다고 설명된다. 풍수에 의해 당산이 배치되어 있는 경우다. 당산할머니, 당산할아버지 등의 호칭은 없다.

(5) 제관

제관은 마을 남자들이 참여하는 마을 회의에서 뽑는다. 그 회의는 제사모시기 5일 전쯤 열리며, 생기복덕을 보아 1인을 뽑는데, 제관의 부인까지 포함되므로 제관은 2인이다. 그 부인이 월경 중이면 안되므로 제관은 대개 환갑을 전후한 사람이 될 경우가 많다. 그리고 며느리가 임신한 경우라든가 굶은 일이 있는 집도 안되므로 가정이 깨끗하고 생기복덕이 맞는 사람이어야 한다.

한편 제사를 전후해 기우하고 금기해야 할 것이 까다롭기 때문에 제관맡는 것을 어려워 했는데, 마을회의에서 마을을 위해 제관으로 뽑혔다는 점 때문에 제관을 맡는다고 하였다. 제관으로 뽑히면 제(祭) 3일 제후(後) 3일 기우해야 한다. 먼저 집 앞에 금줄을 치고 금토를 놓는다. 금토는 제관이 '깨끗한 곳'에서 황토를 퍼다가 대문 앞에 놓는다. 이 때 제관은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가다듬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금토를 파러 가다가 오줌이 마렵거나 뒤가 마려우면 돌아와 일을 보고 목욕을 한 후 다시 가야 한다. 제관은 몸과 마음을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했다. 제주(祭酒)를 담거나 메를 짓고 제물을 만들 때에도 찬물로 목욕을 해야만 한다.

그믐날 아침에 제관이 동네 뒤에 있는 '골안샘'에 가서 샘을 청소한다. 이 샘은 당샘으로 이 물을 길어다 술도 담그고 메를 지었다. 목욕도 거기에 가서 그 샘물로 했다. 골

안샘은 당산제 기간 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신성하고 깨끗한 물로 관념되었다. 예를 들어 산모가 젓이 안나올 때는 이 샘물을 떠다가 ‘젓타기’를 했다. 젓이 안나와 젓탈 때에는 산모가 이샘에 와서 “용왕님네 젓 잘 나와서 우리 애기 먹게 해주십시오”라고 빌고, 두 개의 물병에 물을 담고 솔가지로 막아 거꾸로 세워 양 옆구리에 끼고 내려온다고 한다. 이 골안샘은 김영채씨의 논 위에 있는데, 큰 규모가 아니며 논둑 밑에서 물이 조금씩 나오는 작은 샘이다.

그믐날 오후에 당산을 청소하고 금토를 퍼다 놓는다. 과거에 당산나무에 금줄을 쳤으나 지금은 금줄은 안치고 황토만 놓는다. 당산에 가서 낮으로 풀을 베고 팽이로 구덩이를 파놓는다. 모든 당산에는 제사 후 음식을 묻고 그것을 덮는 '독'이 있는데, 구덩이는 그 독을 걷어 내고 그 자리에 판다. 과거에는 도끼 뿔따구로 구덩이를 팠으나 지금은 팽이를 사용한다.

그믐날 저녁에 제물을 장만하고 메를 짓는다. 메는 여섯 그릇을 짓는다. 제물은 나물이나 편같은 것을 장만하는데, 이 때 맛을 봐서는 안되며, 제주(祭酒)를 맛 봐서도 안된다.

(6) 제물

제관 내외가 여수에 가서 사온다. 물건을 살 때에는 물건 값을 깎지 않으며 달라는 대로 주고 온다. 사과, 명태 등을 사고 소지로 쓸 종이를 산다. 제기는 제관 집의 것을 쓰므로 새로 사지는 않는다.

(7) 제비

제비는 동네돈으로 한다. 과거에는 ‘호구전’으로 각 집에서 쌀을 한 증발씩 걷어서 마련했다. 지금은 동네 돈으로 한다. 동네에서 제관에게 제비를 주는데, 이 돈은 제관의 수고비라는 의미의 돈이며, 이 돈으로 제물을 산다.

③ 당산제의 진행

그믐날 저녁 12시가 되면 제관 내외는 준비한 제물을 가지고 당산으로 간다. 이 때 마을은 정숙을 유지하는데, 선달 그믐날 저녁이 되면 마을 사람들이 통행을 삼가하고 조심한다. 제사는 앞의 여섯 당산 순으로 지내므로, 먼저 당산나무에 가서 제사를 지낸다. 제차는, 제상에 제물을 차리고 술을 따른 후 재배하고 소지를 올리는 순으로 한다. 제물은 메 한 그릇과 명태, 사과, 나물, 편 등이다. 소지는 2장 올리는데, “산신님네, 진쇠님

네, 당산님네, 바닷진쇠님네, 개안진쇠님네 우리 동네는 어장을 많이 헌께 고기 많게 해주십시오”라고 구축을 한다. 진쇠님은 도채비를 의미한다고 한다.

소지를 올린 후 창호지에 제물을 싸서 오후에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묻는다. 다음 당산에서의 제의 역시 당산나무에서의 경우와 같이 한다. 이렇게 여섯 당산에 제사를 올리면 새벽 2시 무렵이 된다. 제사가 끝나면 제관은 집으로 돌아가 휴식을 취한다.

이어 초하룻날에는 헌식을 했다. 배를 타거나 어장을 하는 사람들이 정성을 드리기 위해 마을 앞 갯가에 음식을 차리고 헌식을 했다. 헌식의 주체는 부녀자들이다. 당산제를 모신 제관도 헌식을 한다. 제사를 드린 후에는 짚을 깔아놓고 짚 앞에 제물을 쏟아 부은 후 빈 그릇만 가지고 돌아간다. 헌식은 자기 가족을 생각해서 드리는 제사라고 생각한다.

제관은 제사를 모신 후 3일을 밖에 나오지 않는다. 제후 3일을 기우하는 것이다. 제전 3일처럼 심하게 기우하지 않으며 조심할 뿐이다. 제관은 제후 3일 기우만 끝나면 그 후에는 일반 사람과 다름없이 생활하며 산다.

정월 초사흘날이 되면 동네에서 ‘당산을 치게 된다.’ 매구 치는 것을 ‘당산친다’고 하는데, 여섯 당산을 다니며 굿을 치게 된다. 이때의 당산굿은 특별한 의식을 동반하지 않으며 매구꾼들이 여섯 당산을 순서대로 다니면서 인사를 한다. 이렇게 당산굿을 친 후 샘굿을 치고 제관 집에 가서 매구를 친다. 제관 집에서의 매구는 문굿-정재굿-뒤안굿-마당굿순으로 쳤다. 마을 가가호호의 마당밧기는 과거에는 했으나 지금은 하지 않고 있다.

④ 당산제에 대한 마을사람들의 생각

온동 마을의 당산제가 도중에 중단되었던 적이 있다. 20여년 전쯤에 새마을운동을 한다고 할 때, 당산제를 모시지 말자는 의견이 일어 완전히 당산제를 없앨 수는 없어 당산제를 간략하게 지낸 적이 있었다. 여섯 당산에서 지내지 않고 마을회관에서 동네 임사가 간소하게 지냈다고 한다. 그뿐 아니라 당산이 여러 군데이므로 당산을 줄이는게 좋다고 하여 당산을 줄였다. 당산나무 곧 큰당산에만 제를 모시고 나머지 다섯 당산은 폐지해 버렸다. 이렇게 한 3년을 모셨는데, 동네에 불안이 많고 안좋았다. 그래서 동네 나이 많은 사람들이 옛날부터 지내던 당산제를 이렇게 변질시키고 폐지해서 그렇다 하면서 본래대로 복원시켰다.

이러한 논의들은 외부의 의견이 있어서가 아니라 동네 자체에서 이루어지던 것이었다. 새마을운동이 한창이던 무렵 다른 것들도 간소하게 만드는 경향인데 당산제도 그렇게 하자고 하는 말이 있어 그렇게 해보았던 것이며, 뒤에 이것을 다시 바로 잡았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제일(祭日)의 변동은 없었다고 한다. 당산 제일을 선달 그믐날로 한 것은 옛부터 지금까지 그대로이다. 다른 날에 제를 모셔본 적이 없다. 당산제 기간 동안 동네에 초상이 나거나 유고가 있어도 당산제는 영향을 받지 않았다. 당산제를 위해 제관이 쓰는 물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유고와 상관없다는 것이다.

온동 마을의 당산은 영험하고 ‘세다’고 한다. 옛날 재너머 읍동사람 중에 ‘문늦수’라고 꿩과리를 잘다루던 젊은 상쇠가 자기 동네 당산을 안치고 여기와서 당산을 쳤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었다고 한다. 건강하고 젊은 사람이 이 동네 당산곳을 친 후 갑자기 죽었으니 그만큼 당산이 세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순반란사건 때 마을사람들을 동네 앞에 집합시켜 놓고 마을 뒤 ‘몬당’에서 기관총을 걸어놓고 공포를 쏘려고 했는데, 총알이 안나갔다고 한다. 피식피식 소리만 나고 총알이 안나가서 그 때 군인들이 놀라고 ‘이 동네 신[당산]이시다’고 했다고 한다. 이러한 영험담은 온동마을 당산제의 전승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2) 묘도동 읍동 당산제

조사일자 : 1995. 1. 10.

제보자 : 김귀주(남, 79), 이승우(남, 69), 장기열(남, 80), 이육우(남, 68)

① 여덟 당산과 당산제의 준비

읍동마을의 옛이름은 고을개이다. 읍동은 90여호 되는 마을이다. 경주 이씨가 30여호 되고, 이외 광산, 김해, 경주김씨와 경주정씨, 인동장씨 등이 산다. 제주고씨가 제일 먼저 들어왔다고 하며, 후손이 18대째 살고 있는데, 후손이 많이 남아 있지는 않다.

읍동의 마을 공동제사는 선달 그믐날 저녁에 모시며, 제사 이름은 당산제라 한다.

당산제를 모시는 곳은 마을 북쪽에 있는 ‘산제’이다. 그믐날 저녁에 제관이 이곳에 가서 제사를 모시게 된다. 한편 ‘산제’ 이외에도 ‘밥을 묻는 곳’으로 일곱 군데가 더 있다. 그래서 동마을에는 여덟 당산이 있다고 한다. 여덟 당산의 명칭과 마을에서의 위치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산제(당) 그냥 산제라고도 했고 산제당이라고도 했다. 마을의 북쪽 있으며, 신격은 당산할아버지이다.
- 화전등 - 꽃밭이라고 하며, 마을의 서쪽에 있다.
- 마을 뒤 - 마을의 북쪽에 있다.
- 셋고랑 - 마을의 동쪽에 있다.
- 당산나무 - 마을의 중앙에 있다.
- 당산나무아래 - 당산나무에서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4-50cm 크기의 입석이다. 마을에서는 이것을 밥돌이라고 부른다. 입석 밑에 밥을 묻는다.
- 마을 앞마을 샘에서 왼쪽으로 1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30cm 정도의 입석인데, 마을에서는 이것을 밥돌이라고 부른다. 역시 밑에 밥을 묻는다.
- 마을 입구 - 마을 입구에 위치하고 있다. 밥돌이라고 부르는 30cm 정도의 작은 입석으로, 그 밑에 밥을 묻는다.

8당산은 마을 주위를 둘러 위치하고 있으며, 이것이 읍동마을을 수호해 준다고 여기고 있다.

제사를 모시는 사람을 제관이라 하는데, 한 명을 뽑는다. 이 제관은 당산제를 모시기 4,5일 전쯤 뽑는데, ‘어렵게 어렵게’ 뽑는다. 오행을 보는 사람들이 연상 연하를 막론하고 며칠 전부터 해당자를 뽑아본다. 이렇게 해서 적당한 사람을 뽑아 제사를 지내도록 한다. 한편 이렇게 오행을 보아 뽑는데, 깨끗한 사람이어야 하므로 가능하면 젊은 사람은 피한다. 제관 부인이 월경이 있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개 5,60대가 제관을 맡게 된다. 그리고 부부가 같이 제사를 준비하고 지내야 하므로 상처하지 않은 사람을 선정하게 된다. 한편 ‘임사’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는 제관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임사는 평소에도 마을 일을 맡아하는 사람으로 현재 임사인 이승우(남, 69) 씨는 10여년 이상 임사 일을 보고 있다고 한다.

제관으로 뽑히면, 3일 전부터 기우를 해야 한다. 소변을 보거나 대변을 보면 목욕하고 새옷으로 갈아 입어야 한다. 제관은 이 기간 동안 ‘당샘’ 청소를 하고 그 물로 목욕을 했다. ‘당샘’에 대해 마을에서 부르는 이름은 없으나 이 샘은 보통 때 사용하지 않고 당산제 때에만 사용한다. 제관은 사용았던 샘물을 퍼내고 깨끗하게 청소를 한 다음 새로 솟는 물로 목욕을 하고, 그 물을 떠다가 당산제에 쓸 제주(祭酒)를 담근다. 제주는 잘 숙성이 안되었더라도 쓸 수 있다고 한다.

당산제 모시기 3일 전에 임사가 깨끗한 곳에서 황토를 퍼다가 제관집 대문 앞에 금

토를 놓는다. 임사가 황토를 퍼오는 곳은 마을 뒷산에 있는데, 매년 그 곳에서 흙을 파온다. 또한 대문에 짚을 한 묶은 대나무를 걸쳐 놓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평소에 자유롭게 왕래하던 사람도 출입을 조심하게 된다. 한편 임사는 제관 집뿐만 아니라 여덟 군데의 당산에도 금토를 놓는다. 당산에 금토를 놓는 것은 당산제 하루 전에 하게 된다. 임사가 금토를 푸러 갈 때는 다른 사람 눈에 띄지 않는 밤 중에 가야 하는데, 깨끗하게 목욕을 하고 12시 넘어서 가게 된다. 햇볕에 노출되지 않았던 황토를 푸기 위해 걸흙을 걷어내고 속흙을 파 와야 한다.

제물은 임사가 여수장에 가서 사온다. 명태 10여마리, 성냥, 초, 미역, 과일, 종이 등을 샀다. 제비는 마을 돈으로 충당한다. 과거에는 집집마다 쌀을 걷어 제비를 마련했다. 이 쌀을 '당산제쌀'이라 했다.

② 당산제의 진행과 제후의 행사

그믐날 저녁 12시가 넘으면 제관 부부가 '산제'에 올라 제를 모신다. 제단에 오를 때에는 개짚는 소리나 사람 소리가 들리면 안되고 날짐승나는 것이 보여서도 안된다. 정숙을 위해 마을 사람들은 사립문 밖에 나오지 않으며, 개같은 짐승을 단속한다. 만약에 제를 모시러 가는데 사람소리나 개짚는 소리가 나게 되면 마을에 재앙이 붙는다고 생각한다.

제사를 모시러 가거나 진행할 때는 절대 말을 사용하지 않으며, 손짓으로 의사를 교환했다. 메는 한 그릇 차리며, 나머지 제물도 집에서 그릇에 담아와 그대로 놓고 차린다. 이렇게 진설을 하면 술을 따르고 재배하고 소지를 올린다. 축이 없기 때문에 독축은 하지 않는다. 소지는 세장을 올린다. 소지를 올리면서 다음과 같이 마을 사람들과 생업활동의 번창과 무사함을 기원한다.

“첫째 올리는 소지는 우리 동민이 아무 폐단이 없이 무사히 넘겨주기를 바랍니다. 두째로는 우리 동네 금년 농사를 짓는디 농사에 풍년이 들도록 해주기를 기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모든 것이 바닥이고 육지고 우리 동민이 허는 일에 대해서는 아무런 폐단이 없이 맘묵은 대로 해주십사” 하고 빈다. 이렇게 비는 대상은 당산할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있다. 제사를 모신 다음 '밥돌'을 제끼고 도끼뿔로 파서 거기에 제사지낸 제물을 묻고, 밥돌로 덮어둔다. 그리고 따로 준비해온 현식밥을 짚 위에 부어놓는다. 이렇게 하면 제사가 끝난다. 제사가 끝나고 내려올 때는 올라갈 때의 길로 내려오지 않고 다른 길로 내려와야 한다.

초하룻날 아침이 되면 8개의 상을 준비해서 7개는 당산나무 아래에 차리고, 1개는 샘에 차린다. 이날 당산나무 아래서 지낼 때에는 일반 마을사람들도 참여하고, 농악대가 제관 뒤에 서서 매구를 친다. 제사를 지내는 순서는 '산제'에서와 같이 진설현작-재배-소지 순으로 진행하며, 이 순서에 맞춰 농악도 연주한다. 당산나무 아래서의 제사가 끝나면 그 제물을 '산제'를 제외한 일곱 당산에 묻는다. 당산나무에서의 제사가 끝나면 샘에서 제사를 지낸다. 이때 각 가정에서 부인들이 집집마다 상을 차려 가지고 나와서 샘 앞에 차려놓고 굿을 친 후, 짚을 깔고 그 위에 음식을 붓어 놓는다. 지금은 한 20상 정도 가지고 나온다. 이 제사는 제사를 못받는 잡귀 잡신들에게 드리는 헌식이라고 한다. 갯가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동네 샘 앞에서 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렇게 당산제가 끝난 후 초삼일날에는 당산굿을 치고 마당뺨이를 한다. 당산굿을 치기 전에 먼저 제관 집에 가서 매구를 친다. 이 매구를치고 마을사람들이 제관집에 들어가게 되면, 당산제를 지낸 후 이때까지집에서 기우하고 있던 제관이 비로소 마을사람들과 신년인사를 나누게된다. 제사를 지내느라 수고했다든가, 새해 복 많이 받으라든가 하는 인사를 나누게 된다. 그리고 이때부터 제관은 바깥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 제관 집에서 매구를 치고 난 후 매구꾼과 제관이 같이 나와서 여덟당산에 굿을 치게 된다. 당산굿은 여덟 당산을 일일이 찾아 다니며 치지는 않고, 멀리 있는 곳은 그 쪽을 향해 치고 만다. 당산굿을 치고서는가가호호 마당뺨이를 하게 된다. 마당뺨이를 '답정'이라고도 하는데, 적어도 3,4일 간 치게 되며 흔히 1주일 이상씩 쳤다고 한다.

마당뺨이가 끝나면 동네의 액운을 모두 몰아다가 바닷가로 나가 거기서 굿을 치면서 바다로 액을 띄워 보낸다. 동네에서 액을 몰고 나온 매구는 바닷가에 와서 동네 배에 올라 굿도 치면서 바다로 액을 다 쫓아버린다. 이 때 액을 실어 보내기 위해 바가지에 음식을 담아 촛불을 켜서 바다에 띄운다. 여기서 띄워 놓으면 청풍이 불면 남해로 달아난다고한다.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청풍이 많이 불면 남해사람들은 전부 골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게 된다고 한다. 읍동마을의 액을 모두 바다 건너로 띄워 보냈으니 질병이나 나쁜 것이 침범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다.

마당뺨이를 마치는 날 저녁에는 마을 앞 공터에서 '청단굿'[청산굿]을 치게 된다. 장작불을 피우고 돌레를 돌면서 술과 음식을 먹고 춤도 추고 노래를 부르면서 음주가무로 논다. 이 굿은 액운을 청산하는 의미로 치는 굿이라고 한다. 이 굿을 치면서 매구꾼들은 머리에 쓰고 있던 고깔을 모닥불에 태우는데, 여기에 묻어 있는 액운을 태운다는 의미이다.

당산제를 지낸 뒤 5일 후쯤에나 마을회의를 한다. 이 회의는 당산제만을 결산하는 소규모의 것이고, 이외 마을 일에 대한 협의는 다른 총회에서 다루게 된다. 당산제를 맡아 지냈던 제관에게는 일정 정도의 수고비를 줬다. 거에는 호구대로 걷은 쌀 중에서 주기도 하고, 신발 한 켤레를 사주기도 했다. 지금은 쌀 한 가마값에 해당하는 수고비를 준다.

③ 당산제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

읍동 마을의 당산제는 지금까지 매년 거르지 않고 지내왔다. 혹시 동네에 굶은 일이라도 생기면 당산제를 깨끗이 지내지 못해 그랬다는 평가가 나오므로 제관을 맡은 사람은 정성드려 제사를 모셔왔으며, 마을사람들도 그러한 의식으로 당산제에 참여해왔다고 한다. 지금도 당산제에 대한 생각은 그대로라고 한다. 제관의 경우에도 제관이 당산제를 전후해 지켜야 할 금기나 정성이 부담스럽기 때문에 제관 맡는 것을 꺼려 하지만, 동네 일이라고 여기기 때문에, 제관으로 뽑힌 사람은 일단 선정되면 온갖 정성을 다한다고 한다. 마을 노인들은 전통은 꼭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자기 대에서 전통을 깰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당산제와 관련된 영험담은 특별한 것이 없다. 다만 십수 년 전에 발병한 집단 식중독이 당산제와 관련되어 있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으나 사실과 관계없다고 밝혀졌다. 당시 마을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병하여 사람들이 앓아 누운 적이 있었는데, 점쟁이들이 마을에서 당산제를 잘못 모셔서 그랬다는 말을 하고 마을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상한 음식을 나누어 먹고 그렇게 됐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다.

나. 줄다리기

1) 묘도동 읍동 줄다리기

조사일 : 1995. 1. 10.

조사장소 : 마을회관 노인당

제보자 : 이종길(남, 70), 이육우(남, 68), 이병우(남, 70)

① 전승시기 및 편가르기

이육우 할아버지는 자신이 8세 무렵에 줄다리기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한다. 이로 보아 약 60여 년 전에 전승이 단절된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도 그렇게 인정하고 있다. 편은 이종길씨 댁과 이상호씨 댁 사이로 흐르는 “꼬랑”을 경계로 동편과 서편으로 나뉜다.

② 줄드리기

줄드리기는 정월 14일 경에 시작한다. 줄은 외줄로 드리는데, 아침부터 마을 아이들이 집집마다 다니며 짚을 걷는다. 짚은 농사형편에 따라낸다. 마을 공동샘 부근에서 줄을 드린다. 특히 샘가에 큰 나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나무에 걸어 놓고 드린다.

세 가닥의 '비줄'을 합쳐서 줄을 드릴 때는 "받아라 받아라 받아라"소리를 한다. 줄 전체의 길이는 약 50여 발 정도 된다. 줄은 남자들만 드린다. "여자들이 줄을 넘으면 그 곳이 터진다"고 해서 여자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14일 오후에는 줄이 완성되며, 저녁에는 그 곳에 줄을 감아 놓는다.

③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15일 밤, 저녁 식사를 마치고 사람들이 마을 앞 논으로 모여들면 시작한다. 줄다리기를 하기 전 동서편의 구분 없이 줄을 들쳐메고 마을 안을 다니면서 "어혈싸 덜덜덜" 노래를 한다. 메구가 흥을 한껏 고조한다.

줄 가운데에 경계를 표시하고 징소리와 함께 줄다리기를 한다. "동편이 이겨야 시절이 좋다"는 속설은 있으나, 남녀노소 모두 참여하여 서로 이기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줄을 끝다 불리해 지면 줄을 깔고 앉는다. 여자들은 치마폭에 돌을 담아 줄 위에 앉기도 한다. 승부는 한 판의로 결정한다. 이긴 편은 "서편 아들이 개똥물 썼다/어혈싸 덜덜덜"하며 줄을 메고 다니면서 진 편을 놀려댄다. 이내 곧 승자와 패자가 한데 어울려 흥겨운 잔치를 벌인다.

④ 줄처리

줄다리가 끝나면 마을 사람들이 함께 상의해서 소의 사료로 쓰기 위해 조금씩 잘라 간다.

2) 묘도동 온동 줄다리기

조사일 : 1995.1.10.

조사장소 : 마을회관 노인당

제보자 : 정영주(남, 85), 방선주(남, 74), 방화실(남, 71)

① 전승시기 및 편가르기

이 마을의 줄다리기는 해방 직전까지 전승되었다. 편은 마을 중앙의골목을 경계로 동서편으로 나눈다. 줄의 규모는 상당히 큰 것으로 생각 되나, 오래 전의 일이어서 그런 지 자세히 기억하는 제보자를 만날 수 없었다.

② 드리기

줄은 쌍줄로 드린다. 동편이 암줄이 되고 서편이 솟줄이 된다. '절줄'을 달며, 줄 하나의 길이는 약 50발 정도 된다. 보름날 아침부터 짚을걷는다. 짚은 농사의 규모에 따라 많이 내고 적게 내고 한다. 마을 앞백사장에서 줄을 드리는데 편의 구분 없이 공동작업으로 한다. 여러 사람이 달라 붙어 드리기 때문에 오전 중으로 줄을 완성한다. 또한 여성들도 짚을 운반해 주는 등 활발하게 참여한다.

③ 줄다리기

보름날 오전에 줄을 드리고, 줄다리기는 점심을 먹은 후에 시작한다. 남녀노소 모두 나와 자기편의 승리를 위해 온힘을 다한다. 백사장에서줄을 끝기 때문에 한참 끝다 보면 무릎까지 모래에 묻히기도 한다. 승부는 한 판으로 결정한다. 암솟줄을 가지고 장난을 한다거나 서로 어르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또한 이 마을에서는 줄메는 소리도 하지 않았다고 한다.

④ 줄처리

줄다리기가 끝나면 줄은 소여물로 쓰기도 하고, 달집을 태울 때 같이 태우기도 한다.

다. 달집태우기

1) 달집태우기의 배경

달집태우기는 전남의 동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정월 대보름에 연행되는 기풍(祈畚), 점풍(占豊), 도액(度厄)의 성격을 지닌 놀이이다. 세시풍속(歲時風俗)의 하나로 보름날 달이 떠오르기 전에 마을 청년들은 막 베어낸 소나무나 짚을 가지고 해마다 하는 장소에 움막과 같은 원추형의 집을 짓는다. 달이 뜨는 시간에 맞춰 달집에 불을 지르며, 불을 보며 한 해의 소원을 빌고 부정한 것의 정화를 기원하는 놀이이다.

형태는 지방에 따라 약간씩 다르나 대개 간단한 구조로 되어있다. 막대기 3개를 원추형으로 세우고 묶는다. 속은 짚으로 채우고 겉은 생솔가지와 생대를 집모양에 따라 쌓

는다. 달이 떠오르면 달집에 불을 붙이고 달을 향해 절을 한다.

달집이 훨훨 잘 타야만 마을이 태평하고 풍년이 들며, 도중에 불이 꺼지면 마을에 액운이 있다고 생각한다. 달집이 타고 넘어질 때의 방향에 따라 한해의 풍흉을 점치기도 한다. 달집을 태울 때는 마을 사람들이 농악을 치며 한바탕 즐겁게 뛰놀면서 환성을 지른다. 이 때 그동안 띄우고 놀았던 연(燕)에 주소, 성명, 생년월일을 써서 달집에 태우기도 한다. 그러면 한 해 동안 무병(無病)하게 잘 자란다고 한다.

또한 부녀자들은 소원을 비는 비손을 하기도 한다. 이렇듯 달집을 짓고 불을 지르는 것은 주력(呪力)을 빌어 마을의 도액과 벽사진경의 뜻이 있고, 액막이 연을 걸어 태우는 것도 개인도액을 의미한다. 한편 통대나 술가지를 태워 소리를 크게 내는 것도 불과 소리의 주력을 빌어 축귀(逐鬼)하고 마을의 민안을 기원하는 것이다. 이 놀이는 주술적인 제의와 놀이가 복합된 도액(厄), 기풍(祈), 점세(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온동 달집태우기 (정민주 작)

2) 온동 달집태우기

조사일 : 1995. 1. 10.

조사장소 : 마을회관 노인당

제보자 : 정영주(남, 85), 방선주(남, 74), 방화실(남, 71)

① 시기

정월 보름 저녁에 태운다. 달이 뜨는 시간과 상관 없이 진행하며, 대개 달이 떠오르기 전에 미리 불을 붙인다.

② 달집만들기

이 놀이의 참여자들은 주로 마을의 총각들이다. 준비부터 달집태우기까지 전과정을 이들이 주도한다. 이들은 보름날 오전 마을 뒷산에 가서 소나무와 대나무를 베어온다. 마을 앞 백사장에 나무를 세워 달집을 만든다. 먼저 기둥 세 개를 세워 원추형으로 묶는다. 그리고 속에는 불이 잘 붙도록 짚으로 채운다. 달집 밖은 대나무와 솔가지로 쌓아 만든다. 문은 만들지 않는다.

③ 달집태우기와 점풍

달이 뜨기 전에 불을 붙인다. 불은 달집의 밑부분에 붙여 위로 타오르도록 한다. 불길이 치솟으면 농약을 치고 합성을 지른다. 청년들의 “장난”이기 때문에 어른들과 여성들은 참여하지 않는다. 따라서 여성들이 복을 비는 비손은 없다.

달집이 다 타고 넘어지는 방향에 따라 점풍을 한다. 즉 “위로 넘어지면 옷넉 시절이 좋고, 아래로 넘어지면 아랫넉 시절이 좋다”고 한다. 달집을 태우면서 줄을 함께 태운다. 이 놀이는 40여 년 전까지 했다.

라. 묘도의 설화

1) 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지 못한다는 묘도

섬의 모양이 고양이처럼 생겼다 하여 묘도 또는 고양이 섬이라 한다. 우리말 이름에 해당하는 섬 명칭은 ‘괴섬’으로 알려져 있다. 주변의 쥐섬인 서치도나 소섬인 우순도 등의 이름과 연관되어 보인다. 이런 특이한 이름과 풍수지리설을 바탕으로 이 섬에는 서씨 성을 가진 사람이 살지 못한다고 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이는 잘못 전해진 이야기로 실재는 고양이와는 관계가 없는 땅 이름이다. 묘도의 옛 이름은 괴섬이라 하였는데, 괴섬이란 말은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고어(古語)로 굴(窟)의 뜻이 있다.



고양이섬



음동의 다락논

묘도를 괴섬으로 부르게 된 것은 섬의 서쪽 해안에 바위굴인 괴입이 있었기 때문이다. 괴입의 괴를 본래의 의미인 굴로 생각하지 않고 고양이로 추측하여 한자표기도 고양이 묘(猫)자로 표기함으로써 현재의 묘도가 되었던 것이다.

2) 묘도의 풍수

묘도 주위에는 독특한 지명을 갖고 있는 섬이 있다. 묘도는 고양이 섬, 서치도는 쥐 섬, 우순도를 누룽지섬이라고 한다. 우순도는 서치도 앞에 있으니, 쥐 앞에 누룽지고, 서치도는 묘도 앞에 있으니 고양이가 앞에 쥐가 된다.

서치도에서 묘도를 바라보면 마치 고양이가 쥐를 먹기 위하여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은 형국에서 옛날부터 전하여 오는 전설은 쥐의 몸 열배나 더 큰 누룽지를 가진 섬이 고양이를 앞에 있다고 하여 고양이가 쥐와 누룽지를 놓고 어느 것부터 먹느냐 하는 모습이어서 이 곳에 큰 인물은 나지 않더라도 의식주만은 걱정이 없을 것 이라고 전한다. 구전에 의하면 이 섬의 꼬리(즉 고양이가 꼬리는 남해군 쪽에 있음)를 유두라고 불렀다.

그래서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일본인들이 석유가 나올 것이라며 이곳에서 탐사 작업을 시도해보았지만 모두가 허사였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지금 이곳에는 GS칼텍스 원유 부두가 설치되어 대형 유조선이 항상 정박하고 있어 선조들의 선견지명은 수천 년 후의 우리나라 발전과 개발에 대한 예측을 하고 있었던 것 같다.

3) 묘도의 지명유래

고양이섬 묘도의 지명유래에 대한 전설은 두가지가 전해 내려온다.

풍수상 영취산을 독수리로, 묘도를 고양이로 비유하여 영취산 정상에서 내려다 보는 독수리와 고양이가 눈앞의 쥐를 노려보고 으르렁 거리는 형국인바 독수리는 영취산 이요 고양이는 묘도 일지니 쥐는 의당 쥐섬(우순도앞 적량동 산220번지) 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은 이들 세곳의 지명대로 설화 된 것 같으니 영취산은 영험이 있는 독수리요 묘도는 양증스러운 고양이니 쥐는 우순도의 소품에서 숨을려는 모양새를 이루고 있음이다. 여기에서 고양이는 누룽지와 쥐를 놓고 두가지 먹이 중 어느 것을 먹을까 입을 벌린 채 망설이고 있으니 누룽지는 서치도요.(묘도 산288번지) 쥐는 역시 쥐섬이다. (심재수 전언)

일설은 쥐와 누룽지 뭉치를 코앞에 두고 고양이는 취사선택의 포만감에 빠져 있으며

로 큰 인물은 나지 않더라도 의식주만은 걱정 없을 것이라고 전해진다는 설이 그것이다.²⁰

마. 주민들의 생애사

1) 거북선 발굴 송도, 묘도, 장도를 뒤져라²¹

최근 여천 신덕 앞바다에서 임진 왜란 때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총통 6점이 인양되자 충무공 해저 유물 발굴단이 연일 발굴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별성과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발굴단이 왜 신덕이나 백도 해역만 집착하고 있는지 답답하기 짝이 없다.

당시의 상황을 보면 충무공을 모함하여 후임이 된 원균은 정유년(1597년)7월16일 2백여척의 함선을 이끌고 나갔다가 칠천 해전에서 전멸해 버렸다. 백의중군하던 이충무공이 7월 20일 통제사로 재임명 되어 12척 남은 함선을 재정비하여 9월 16일 노량대첩을 거두고 고금도에 1년 가량 유진 했었다.

그런데 이듬해 풍신수길의 죽음으로 적군이 몰래 빠져 나가려는 기미가 보이자 충무공은 신속히 고금진을 떠나 무술년(1598) 11월11일 송도에 도착, 18일까지 8일동안 묘도와 장도일대를 초계 하였다. 그러므로 발굴단은 꼭 신덕과 백도만 뒤질것이 아니라 앞으로 송도, 묘도 장도 일대로 방향을 돌려 탐사작업을 벌려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이에 덧붙여 한가지 말하고 싶은 것은 일부언론들이 여수 남산동에서 나온 호좌수영 사례란 옛문헌을 근거로 한일합방(1910년) 당시까지 여수 앞바다에 거북선이 떠 있었다고 요란스럽게 보도하고 있다.

그런데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견해를 달리하고 있다.

첫째, 일본의 강압으로 1895년 7월15일에 이미 전라좌수영이 폐영 돼 버렸는데 어떻게 1900년대까지 거북선이 존재 할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다.

둘째, 지금부터 84년 전인 한일 합방때의 일이라면 혹 사진이나 구전으로도 전하는 것이 있을법한데 전혀 없지 않는가.

20 1986 여천시 마을유래지 155p

21 동아일보 1994.02.14.

셋째, 이 책에 보면 계유 3월에 쇠붙이 1,500근으로 거북선을 만들었다는 기록이 있는데 그 계유년이 과연 어느시대의 계유년인가 하는 문제가 되두된다.

임진란 이후의 계유년을 열거해 보면 인조11년, 숙종19년, 영조25년 순조13년 고종10년을 들수 있는데 필자는 다음과 같은 논거에서 순조13년(1813)의 계유년으로 본다. 장흥부와 회령포는 원래 좌라 우수영에 속했다가 순조때 전라 좌수영 관할로 처음 들어온 곳인데 이 두곳이 이책에 올라 있는 것으로 봐서 순조13년으로 볼수 있다. 그렇게 볼 때 1813년에 만든 거북선이 97년 뒤인 한일합방까지 존재 했다는 것은 믿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그 계유년을 또 고종10년(1873)의 계유년으로 생각해 볼수 있지만 그때는 있던 군대마저도 일본의 압력으로 해산 시켜야 했던 판국에 거북선을 새로 만든다는 것은 도저히 생각 할수 없는 일이다. 이같은 객관적 정세로 보아 1900년대 거북선 존재설은 믿기 어려운 일이다.²²

2) 여수산단 진입 도로 착공

여수와 광양을 잇는 '여수산단 진입 도로 건설 사업' 착공식이 2007년 11월 19일 여수시 월래동 GS칼텍스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총 8,8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이 사업은 여수시 월래동 묘도 뱃머리에서 묘도동을 거쳐 광양으로 연결되는 도로 건설 공사로, 총 길이가 8.54km에 달한다. 도로는 4차로로 개설되며 여수~묘도~광양 간은 다리로 연결된다.

길이 5.3km의 세계적인 규모로 건설되는 묘도~광양 간 다리는 벌써부터 국내외의 주목을 받고 있다. 전라남도는 2011년 12월까지 도로 개설을 마칠 계획인 이 사업은 지난 2003년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 사업으로 건설교통부에 건의해 기획예산처로부터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또 전라남도 주관으로 2005년부터 기본 계획과 공사 입찰(일괄 턴키) 및 기본 설계 용역을 마치고 2007년 사업비 202억원을 확보, 실시 설계 및 각종 환경 영향 평가 등 인·허가를 추진했다.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기존 국도 17호선을 이용하는 여수와 광양 사이를 운행하는 차량은 예전 80분에서 10분으로 통행 거리가 단축돼 교통 혼잡 완화

22 김계유(국사편찬위원회 사료조사위원)

및 물류비 감소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여수국가산업단지의 물동량을 광양컨테이너 부두로 운송하는데 있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와 함께 광양산업단지 활성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투자 촉진,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기반 시설로써의 기능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²³

3) 도독마을의 규약(마을자치법)

도독마을 해안은 구획을 나누고 육지의 밭처럼 돌담을 쌓아 경계를 만들어 놓았다. 자연산 바지락과 조개가 자라는 양식장인데 돌담으로 구분된 1칸은 대략 200평 규모이다. 누구나 도독마을에서 3년간 살게 되면 마을 주민으로 인정이 되어 양식장 밭 3칸을 할당 받는다.

같이 살던 자식이 분가하여 마을에 살게 되면 다시 3칸을 배당해 준다. 단 상속은 할수 없으며 발주인이 사망이나 이사를 가게 되면 다시 마을 공동체로 반납 한다. 여분의 갯밭들은 마을에서 공동으로 운영하여 마을기금으로 적립하는 부촌으로 현재 29가구가 거주하며 배당된 양식장 밭에서 자연스럽게 자라는 조개만 채취해도 가구당 1년에 수백만원의 소득이 보장 된다.

당시 사용하던 멸치막은 섬아낙들의 휴식처가 되어버렸고 그시절 마을주민인 임천수(87)씨도 젊은 시절 낭장망 그물로 멸치를 잡아 부를 일구었다는 마을 규약과 추억담을 이야기한다.



도독마을 바지락 양식장



도독마을의 임천수(87)씨

23 <http://yeosu.yestv.co.kr/SubMain/News>

4) 여수 묘도 ‘유해곤충 습격 사건’²⁴

사고나면 ‘흑염소’가 ‘흰염소’로 변신 미스터리

모기-깔따구 때문에 골머리... 주민들 밤외출 기피할 정도

일부 “광양만 준설토 탕” 주장 섬 마을에서 육지로 변한 전남 여수시 묘도 주민들이 모기와 깔따구 등 유해곤충의 습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주민들은 5월부터 모기 등이 너무 많이 날아다녀 밤 시간대에 외출을 기피할 정도다. 묘도동 창촌마을 김 모 씨(44)는 4일 “아침에 축사에 가면 검은 염소가 흰 염소로 보일 만큼 모기가 많이 붙어 있다”며 “언제부터인가 가축에 약을 뿌려 모기를 쫓는 게 하루 일과의 시작이 됐다”고 하소연했다.

주민들은 묘도 동쪽 해안에 모아둔 광양만 준설토 308만 m²(약 93만 평)에서 모기가 생겨나고 있다고 주장한다. 준설토는 2001년부터 광양만에 큰 선박이 운항할 수 있도록 바닥을 준설했다 해안가에 쌓아놓은 것이다.

주민들은 준설토 야적의 필요성을 인정하지만 올해 모기가 가뭄으로 심각한 피해를 주는 만큼 해결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준설토를 쌓아 둔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유해곤충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있다. 준설토 투기장에는 바닷물이 유입돼 모기가 생길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바닷물이 고인 웅덩이에서 깔따구 등 유해곤충이 생겨날 수 있으며 바람을 타고 2~3km 떨어진 마을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 관계자는 “4월부터 8월까지 매월 2, 3차례 준설토 투기장에서 방역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방역을 해도 유충을 100% 제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여수지방해양항만청은 올해 준설토 투기가 끝나면 매립이 시작돼 유해곤충 발생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여수시는 묘도 주민들의 하소연이 잇따르자 유해곤충을 포집해 보건당국에 유해곤충의 종류와 밀도 조사를 의뢰했다.

5) 여수시, 묘도동에 친환경 모기 기피식물 보급²⁵

지난 20일 아게라탐·바질 1만여본... 지난달도 구문초 5000여본 보급

여수시가 간척지를 끼고 있는 묘도동 주민들에게 친환경 모기 기피식물을 보급했

24 이형주 기자 (동아일보 2012-07-05)

25 [업코리아] 천승오 기자 승인 2017.06.22.

다. 시는 지난달 구문초 5000여본을 1차로 보급한 데 이어 지난 20일 아계라텀 5000여본과 바질 5000여본을 추가 보급했다고 밝혔다.

이 식물들은 모기나 파리 등 곤충들이 기피하는 특유의 향을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는 모기 기피식물의 효과 분석 후 보급을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시 보건행정과와 27개 읍·면·동에서 수시로 방역소독을 실시하고 있다”며 “위생해충으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달 15일 여수축산농협조합과 조합원들이 축사 주변의 방역소독에 적극 동참하는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위생해충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운동마을 모내기 (1997년 정종권 작)



운동마을 모내기 (정종권 작)



마지막 꽃상여 (정종권 작)



추곡수매 하는 날 (정종권 작)



1970년대 모시작업 (정종권 작)



운동의 겨울 2005년 (정종권 작)

묘도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의 규정에 의거 주민편의 및 복리 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 기위하여 묘도동에 설치한 묘도동 주민자치위원회(이하 본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의 원칙) 본회는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 제3조 각 호 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되 본회 자율적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제3조(기능) 본회는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3조와 제16조 각 항의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인 운영
2. 지역개발과 주민숙원사업관련 동장의 자문에 관한사항
3. 주민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토론회 등의 개최
4.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축제, 행사의 연구 및 추진
5.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추진
6. 지역홍보활동 및 대외 협력사업의 추진
7. 2012여수세계박람회 시민운동의 적극 참여
8. 기타 본회 운영과 주민자치활동에 필요한 사항

제4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묘도동 주민센터 내에 둔다.

제2장 구성 및 회의

제5조(구성) ① 본회의 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 수 있다.

② 위원의 정수는 창촌 12인, 읍동 5인, 온동 5인 도독 2인, 광양포 1인으로 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되 1인 이내의 증감은 인정키로 한다.

- ③ 위원의 위촉은 묘도동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정된 자 중에서 위촉하되 여성위원이 8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1. 각 통 운영위원회 추천 각 1인(6인)
 - 2. 묘도지역발전협의회, 묘도도선운영위원회 추천 각 2인(4인)
 - 3. 묘도동부녀회 추천 2인
 - 4.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자 13인
- ④ 위원모집 공고에 의하여 선정하는 위원은 다음의 우선순위를 적용키로 한다.
 - 1. 여성위원 신청자
 - 2. 봉사단체의 장 및 구성원
 - 3. 30~40대 청년층
- ⑤ 기타 위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17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임원의 선출) ① 본회의 임원은 임기가 시작(위촉)되는 정기회의에서 선출한다.

-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 ③ 사무 간사 1인은 동장이 추천하는 동사무소 직원으로 하고 회계간사 1인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지명한다.
- ④ 고문은 동장이 위촉하되 묘도동에 거주하거나 관내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 ⑤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고문은 본회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 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 위원은 본회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제8조(해촉) 본회의 임원 및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은 조례 제20조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회의) ① 본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할 수 있다.

- ② 제①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 동장과 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제10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 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제3장 회계

제11조(재정) ① 본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와 시 지원금, 협찬금, 후원금 등으로 충당한다.

- ② 위원의 회비는 월 1만원으로 하며 년납, 분기납, 월납으로 할 수 있다.
- ③ 위원이 월 회비를 3개월 이상 미납 시는 제명 할 수 있다.

제12조(재정의 관리) ① 본회 재정 중 시 지원금은 여수시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하여 위원장과 동장이 협의하여 관리하고 회비, 협찬금, 후원금 등은 위원장이 관리한다.

- ② 사무 간사와 회계간사는 본회의 회계 현황을 매월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③ 기타 예산의 편성과 회계업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관련 조례와 시행규칙에 의한다.

제13조(경비의 지출) ①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목적에 한하여 지출 한다.

1. 자치센터 각종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위원회 회의비
3.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위원회 주관 사업비
4. 자치센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비용
5. 기타 본회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13조(지출의 승인) 정기회의를 통한 지출결의를 원칙으로 하나 다음의 경우는 별도로 한다.

1. 자치센터 연간 운영계획에 의한 지출
2. 경상경비로 자치센터 시설 및 장비유지를 위한 지출

3. 시간상 위원회의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여 위원장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이 때의 지출 한도는 20만원 이내로 한다.)

제14조(결산보고) 위원장은 분기별로 자치센터 운영 및 위원회 사업결과 보고를 홈페이지, 소식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공개 하여야 한다.

제4장 자원봉사자(단체)의 조직과 활동

제21조(조직) ① 본회는 주민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과 위원회 사업 및 행사에 주민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단체)를 조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자원봉사자(단체)는 기존의 관내 봉사단체를 지정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③ 본회에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의 대표는 본회에 참석하여 발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임무와 수당) ① 자원봉사자나 단체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위원회 사업에 업무 및 노력봉사를 제공하는 임무를 부여한다.

② 자원봉사자(단체)는 무보수를 원칙으로 하되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일정 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 할 수 있다.

제23조(주민자치프로그램 동아리 및 봉사단체 활동 지원) ①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동아리와 위원회 사업에 적극 참여하는 봉사단체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다.

② 전항의 운영비 지원은 동아리 또는 봉사단체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활성화를 위한 각종 이벤트 및 회의 등 단합 목적의 행사에 한하며 사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의 범위와 규모를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자) 이 운영규정은 2009년 12월 15일부터 시행한다.

5. 묘도의 부속섬

묘도에 소속된 부속 섬으로 지신도, 송도, 목도, 소당도, 황도(괴입), 황도, 서치도, 섬목섬, 우순도 등 9개가 있었다. 1987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지신도가 광양시로 편입되고 섬목섬, 우순도가 공장용지로 매립돼 육지가 되어 현재는 6개의 부속 도서가 있다.

가. 지신도

- 행정구역 : 광양시 금호동 893-3번지(前 여수시 묘도동 산 1번지)
- 위 치 : 북위 34도 50분 40초, 동경 127도 45분 26초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



매립 전 지신도(중앙에 작은 섬)



지신도의 현재 모습

해발 22m 높이의 지신도는 1918년 제작된 강점기시대 지도에는 지진도(智進島)로 표기되어 있으며 묘도에서는 ‘지싱이’, ‘쥐섬’으로 불렸다. 김재천 씨라는 사람이 혼자 살았던 유인도였다. 북서쪽에는 넓은 모래사장이 있었고, 식수로 쓰던 웅달샘도 있었으며 배를 대는 선착장도 있었다.

주소가 묘도 산1번지였는데 1987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광양 장도를 여천군에서 편입하고, 묘도 지신도는 광양시에서 편입하면서 묘도 산1번지였던 지신도는 광양시 금호동 893-3번지로 바뀌었다.

이후 육지로 매립돼 광양제철소 부지가 되었다. 이후에도 한동안 개인소유로 남아 있다가 제철소 공장 확장으로 광양제철소에서 매입했다.



해안 지형



곰솔 군락



대나무 군락

나. 송도

- 행정구역 : 여수시 묘도동 산 259번지
- 위 치 : 북위 34° 50' 23", 동경 127° 40' 48"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

유인도였던 섬이었으나 1969년 11월 22일 송도가 진의 종씨에게 매도되고 거주자가 섬을 빠져나가 무인도가 됐다. 묘도의 새섬과 함께 철새가 많이 찾는 섬으로 이번 조사에서도 천연기념물 2호로 지정된 멸종 위기종인 검은머리물떼새가 발견됐다.



송도



천연기념물 검은머리물떼새

① 지질과 지형

옛날부터 이 섬에 소나무가 잘 번식한다고 해서 송도라 칭하였다. 동쪽이 넓고 서쪽은 좁으며 남쪽을 제외한 3면은 암벽이다. 지질은 주로 중생대 백악기 퇴적층인 낙동군층 하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해안을 따라 침식이 일어나 여러 가지 형태의 지형이 발달했다.



해안을 따라
곳곳에 형성된 토어



침식에 의해 형성된
나무화석 구멍



기반암을 관입한
암맥의 흔적



역암층에 형성된
타포니(Tafoni)

② 식생



사스레피나무



계요등



예덕나무



총꽃



굴피나무



풀고사리



순비기



개복숭아나무

다. 목도

- 행정구역 : 여수시 묘도동 산 260번지
- 위 치 : 북위 34° 50' 20", 동경 127° 40' 34"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

나무가 많다 하여 목도라 불렸다고 전해지며 면적은 21,322㎡이다. 월내 선창에서 북서방 650m, 묘도 선창에서 동남방 700m 지점에 위치한다. 동서 방향으로 자리 잡은 섬은 동쪽은 넓고 서쪽은 좁은 타원형이다. 묘도와 마주 보고 있는 북쪽은 암벽으로 드리워진 절벽이나 그중에서도 동쪽은 조금 완만하다. 간조 시 동남방의 가문여 쪽은 60

여m에 달하는 해저가 모습을 드러내고 동남의 끝머리엔 굴 껍데기가 많이 쌓여있다.

예전에는 묘도에 전기를 공급하기 위한 송전탑이 세워져 있었으나 철거되고 묘도 대교의 주탑이 자리 잡고 있으며 마지막 소유자인 김복수 씨가 섬을 매도한 뒤 출도하여 무인도가 됐다.



목도

① 지질과 지형

옛날부터 이 섬에 나무가 잘 번식한다고 하여 목도라 칭하였다. 해도상 북도로 표기, 썰물 때면 동남쪽의 가문여 쪽으로 육계사주가 연결된다. 묘도 대교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중생대 백악기 안산암질 응회암층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주변의 섬보다 조류의 영향을 심하게 받아 해안 침식이 매우 심하게 일어나 침식에 의해 형성된 지형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다.



해수의 침식에 의해 형성된 파식대지



해식에 형성과정에서 만들어진 토어



해식에

② 식생

소나무, 아카시아, 함박꽃나무, 털팽나무, 개벚나무, 등칫 등이 자생하며,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고 있고, 억새를 비롯하여 박주가리 등의 초본식물이 산재한다.



엄나무



천문동



참나리



까치수염



번행초



멀구슬나무



국수나무



굴피나무

라. 소당도

- 행정구역 : 여주시 묘도동 산261 번지
- 위 치 : 북위 34° 50' 22", 동경 127° 40' 35"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

섬 안에 집 같은 작은 바위가 있어 옛날부터 소뎡이, 소당도라 불리고 있다. 예전에 이곳에서 당제를 모셨으며 묘도목장의 감독기관인 곡화목 감목관이 매년 마을 주민의

안녕과 말의 번식과 성장을 기원하는 당제를 모셨다고 전해온다.



소당도

마. 괴섬

- 행정구역 : 여수시 묘도동 산 287번지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

사빈의 퇴적으로 육지화가 진행되어 그 위로는 갈대들이 자라고 있다. 일반적으로 묘도에서는 작은 섬을 황도로 부르는데 바로 옆에 산 262번지도 황도로 되어 있다. 여수시 관내 행정지도에서도 황도로 표기하였는데 2015년 8월 17일 괴입으로 지명 고시하여 개명됐다. 풍수상 눈앞에 누룽지 먹이를 노려보는 고양이의 입에 해당하는 자리라고 하며, 묘도의 상징인 고양이 입 모양을 닮은 바위가 있다.

① 지질과 지형

백악기 응회암질 역암층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남측해안에 암맥이 분포하며 해안은 단구와 해식애가 발달하여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육지화가 진행된 괴입



고양이 입모양의 괴입



남측해안에 분포하는 암맥



토어



수직절리와 해안단구



해안단구



파식대지와 해식애



파도의 침식에 의한 풍화혈

바. 황도

- 행정구역 : 여수시 묘도동 산262 번지
- 위 치 : 북위 34° 50' 27", 동경 127° 40' 24"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

‘노랑’, ‘누룽지섬’ 또는 ‘똥섬’이라 부른다. 묘도에 소속된 섬 중에서 본섬에 제일 가까이 있다. 지번은 묘도동 산 262번지로 면적은 2,876㎡이다. 묘도 선창에서 서북방 1,050m, 괴입에서 남동으로 720m 떨어져 있으며 섬 전체가 암벽으로 에워싸여 있고 남, 서, 북의 3면은 절벽이며 동쪽은 완만하다. 동서로 자리 잡은 섬은 남북은 넓어 다이아몬드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본섬의 대안 산 263-1번지와는 108m 떨어져 있고 간조 시에는 연결돼 보행할 수 있으며 밀물 때는 섬이 된다.

소나무, 함박꽃나무, 장구밤나무, 참나무, 싸리나무, 가시나무 등이 자생하고 소나무가 주종을 이루며 간조시 해변에서는 바지락, 고막, 소라 등의 패류와 게, 썩 등도 잡힌다. 1990년 9월 29일자로 묘도동 1037번지 정만영에게 소유권이 이전됐다.



남서 방향에서 본 황도



북쪽에서 보는 황도



간조 시 드러나는 육계사주



포획암 지질

사. 서치도(쥐섬)

- 행정구역 : 여수시 묘도동 산 288번지
- 위 치 : 북위 34° 50' 72", 동경 127° 40' 16"
- 토지 소유현황 : 사유지



서치도

섬의 형태가 쥐를 닮았다 하여 서치도라 칭한다. 묘도에서는 작은 섬들을 쥐섬이라 하는데 쥐섬이 여러 개 있는 섬 중 하나다. 10여 년 전 주변 해역에서 수십억대의 새조개가 자연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묘도동 어촌계와 울촌면 어촌계가 채취권을 주장하며 맞서 왔다.

① 지질과 지형

중생대 백악기 응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남측해안을 따라 암맥들이 분포하고 있고 풍화와 침식으로 형성된 다양한 지형들이 형성돼 있다.



다양한 암편으로 형성된 응회암



응회암의 풍화로 이루어진 타포니(Tafoni)



응회암층을 관입한 암맥



응회암층을 관입한 암맥



퇴적층을 이루는 층리의 모습



퇴적암이 풍화되어 형성된 층



염분에 의해 발달한 염풍화현



노치(Notch)가 형성되기 직전의 모습과 형태

② 식생



곰솔 군락



담쟁이덩굴



자귀나무



팽나무

아. 섬목섬

여수국가산단 부지 확장으로 매립되어 육지가 되었다.

자. 우순도

여수국가산단 부지 확장으로 매립돼 육지가 되었으며, 우순도 외에도 여러 개의 이름이 있는데 묘도에서 이름을 지었다고 추정된다.

우측에 있다 해서 우순도라 했는데 마을에서는 '우싱이'라 부르며 육지 가까운 쪽이라 해서 묘도의 위에 있다는 의미로 '웃섬'으로도 불렀다. (묘도동 심재x 씨 인터뷰)

적량 부락 뒷산(제당산)의 모양이 큰 소가 옆드려 있는 소의 머리 부분의 입술에 해당한다고 하여 우순도라 부르게 되었다고 전해진다. (여천시 향토지명 모음집)



매립되어 육지가 된 우순도

차. 가문여

- 행정구역 : 여주시 월내동 산179번지
- 위 치 : 북위 34° 50' 19", 동경 127° 40' 04"

목도와 GS칼텍스 사택이 있는 장구미 사이에 위치하며, 새섬 옆에 있는 여이다. 썰물 때 확연히 모습을 드러내고 밀물 때면 가물가물 보인다고 해서 가문여라 불렀다. 새섬에서 북동 방향 220m에 위치한다.

가문여는 동서로 자리하고 있는데 물때에 따라 동쪽 모래톱의 형태와 크기가 약간씩 변하며 썰물 때는 몇 배나 넓은 면적이 드러난다. 섬의 정상은 5m 반경 크기의 암반 지대로 해발 5m가 되지 않는데 팽나무가 3그루가 뿌리 내리고 있다.

묘도에서는 좋은 일이나 이익이 되는 일에는 빗 좋게 거드름을 피우고 어렵거나 부담이 되는 일엔 슬그머니 꼬리를 감추는 얄미운 사람들을 가문여에 비유했다 하며 가문여 밖에 죽방이 있었는데 외지 배가 와서 멋모르고 밭을 털다가 썰물로 배가 좌초되어 주인에게 붙잡혀서 망신을 당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다는 촌노들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가문여